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경계선지능

청소년 자립준비 주거지원사업 성과에 관한 연구

2023. 1.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경계선지능

청소년 자립준비 주거지원사업 성과에 관한 연구

2023. 1.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성신여자대학교
SUNGSHIN WOMEN'S UNIVERSITY

세상을 바꾸는 작은변화,

이 연구보고서는  아름다운재단 지원으로 제작하였습니다.

The Beautiful Foundation

| 연구진 |

- 책임연구원_ 박현용(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공동책임연구원_ 손선옥(성신여자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연구원)
- 연구보조원_ 이승연, 조민주(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목차

1장. 서론_ 01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03
2절. 연구의 수행체계	06

2장. 이론적 배경_ 07

1절. 청소년복지체계에서의 자립지원 대상 현황 및 특성	09
1.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의 특성	09
2. 경계선지능 청소년의 특성	11
3.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준비	13
2절. 우리나라 청소년복지체계의 자립지원	14
1. 청소년쉼터	14
2. 청소년자립지원관	17
3. 청소년자립지원 체계에 대한 소결	19
3절. 경계선지능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동향	19
1. 학술적 논의 동향과 일선 지역 조례 제정 현황	19
2. 정부의 청소년자립지원에 관한 정책의 변화	20
1)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자립지원 서비스	21
2) 변화하는 보호종료 청소년들의 자립준비 지원제도	22
4절.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경계선지능 청소년 주거지원사업의 경과	23
1. 사업의 배경과 목적	23
2. 주거지원사업의 논리모델	24
3. 프로그램 구성요소	25
4. 프로그램 진행과정	27
1) 프로그램 참여자 현황 및 기간	27
2) 참여자의 프로그램 제공 현황	28

3장. 연구방법_ 29

1절. 연구개요	31
2절. 연구설계 및 조사대상	31
3절. 측정도구	32

4장. 연구결과_ 33

1절. 표본의 특성	35
1. 심리·정서·행동의 변화	38
2. 자립준비도의 변화	41
3. 주거지원사업 참여자의 주거 관리	43
2절. 경계선지능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경험 질적 분석결과	45
1. 청소년복지시설 자립지원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험	45
1) 프로그램의 경험과 만족도	47
2) 주거지원 프로그램 비참여자의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경험과 만족도	51
3) 청소년이 평가한 주거지원 사업 참여의 성과	53
4) 자립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 역량	55
2. 청소년복지시설 자립지원 프로그램 실무자의 경험	56
1) 경계선 지능은 범주로 담아내기 어려움	58
2) 청소년의 자립 의제는 자립준비 체계를 갖추는 것부터 시작	60
3)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자립지원은 지역사회가 함께해야 할 과제	61
4) 단기적 접근은 자립준비를 성공에 이르지 못하게 함	63
5)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자립 가능성은 충분함	66

5장. 논의 및 결론_69

1절. 주요 연구결과 요약	71
1. 경계선지능 청소년의 특성	71
2. 경계선지능 청소년 주거지원사업의 성과분석	71
3. 경계선지능 청소년 자립지원 경험에 관한 질적분석	72
2절. 연구의 제한점	73
3절. 제언	74

참고문헌_ 77

표 목차

〈표 1〉 연구수행 체계	06
〈표 2〉 청소년쉼터 퇴소 사유	11
〈표 3〉 청소년쉼터 현황(2022.7.31.)	15
〈표 4〉 청소년쉼터 유형별 주요 서비스 기능과 지향	15
〈표 5〉 청소년쉼터 유형별 인력배치 기준	16
〈표 6〉 청소년자립지원관 자립지원 서비스 내용	17
〈표 7〉 청소년자립지원관 자립지원서비스 예시	18
〈표 8〉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 비교	21
〈표 9〉 아동청소년보호체계 자립지원 서비스 주요 현황	22
〈표 10〉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관련 예산 현황	22
〈표 11〉 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 주요 과제 개선안	23
〈표 12〉 프로그램 구성요소 분석	26
〈표 13〉 프로그램 구성요소 중 직접개입 영역의 실행 성과	27
〈표 14〉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주거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현황	28
〈표 15〉 주거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지능검사 결과	35
〈표 16〉 MMPI-2 임상척도 결과	36
〈표 17〉 주거지원사업 성과분석 대상자	38
〈표 18〉 주거지원 프로그램 참여자의 자립준비도 변화	42
〈표 19〉 경계선 지능 청소년 면담 참여자 정보	45
〈표 20〉 경계선지능 청소년 자립지원프로그램 참여 경험	46
〈표 21〉 실무자 초점집단면접 참여자 정보	57
〈표 22〉 실무자의 자립지원경험	58

그림 목차

〈그림 1〉 청소년 자립준비 영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매뉴얼	04
〈그림 2〉 청소년쉼터 입소자의 주요 문제	09
〈그림 3〉 연도별 청소년쉼터 입소 현황	10
〈그림 4〉 지능지수의 정규분포 상 경계선 지능(IQ 71~84) 구간	12
〈그림 5〉 아동복지시설 경계선 지능 아동 현황	12
〈그림 6〉 중장기쉼터 운영모형	16
〈그림 7〉 1995~2022. 7까지의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에 대한 KCI 논문 수	20
〈그림 8〉 경계선지능 청소년 지원 지자체 조례 현황	20
〈그림 9〉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자립지원 체계 비교	21
〈그림 10〉 주거지원사업 논리모델	25
〈그림 11〉 주거지원사업 간접개입활동 현황	27
〈그림 12〉 참여자의 프로그램 제공 현황	28
〈그림 13〉 참여자의 지능검사 결과	36
〈그림 14〉 MMPI-2 임상척도 결과	37
〈그림 15〉 참가자 사례 6의 MMPI-2 검사결과 변화	38
〈그림 16〉 참가자 사례 5의 MMPI-2 검사결과 변화	39
〈그림 17〉 참가자 사례 8의 MMPI-2 검사결과 변화	39
〈그림 18〉 참가자 사례 1의 MMPI-2 검사결과 변화	40
〈그림 19〉 경계선지능 청소년의 자립지원 경험	46
〈그림 20〉 청소년자립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실무자의 인식과 지원방향	57
〈그림 21〉 경계선지능 청소년 자립지원 한계점	75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경계선지능

청소년 자립준비 주거지원사업 성과에 관한 연구

0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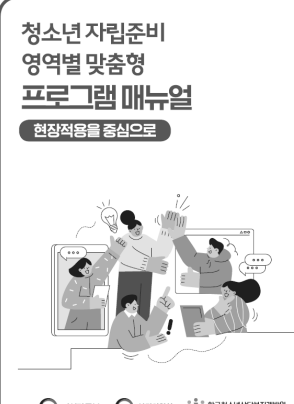
-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절 연구의 수행체계

1장 서론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이들에 대한 적절한 자립지원을 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일반적으로 보호 종료 아동이란 양육시설, 공동생활 가정, 가정위탁 등과 같은 아동보호체계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가 만 18세 이후에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을 말함.
 - 아동복지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의 규정에 따라 기본적으로 만 18세가 된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조치가 종료되며 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게 됨.
- 보호 종료 아동의 경우 가정에서 보호받는 아동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립해야 하므로 주거문제, 경제적 문제, 일상생활 관리기술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자립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과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김현주·한경임·장지현, 2022)
- 정부에서는 자립수당,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였지만, 일반청년과 비교하여 자립을 위한 여건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2021년 7월 13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보호 종료 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에서 보호 종료 아동들의 자립을 위한 충분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발표함(보건복지부, 2021).
- 하지만 자립을 준비하는 아동에 대한 보호와 자립지원 관련 서비스에 대한 논의는 주로 아동보호체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소년보호체계에 대한 지원 및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음(이상정 외, 2020).
 - 아동복지시설 거주 보호 종료 아동과 비교하여 쉼터 및 청소년 자립지원관과 같은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경우 만 24세까지 거주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논의에서 지원의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전민경·이지선, 2020).
 - 예를 들어, 2019년에 시작된 자립수당과 주거지원 통합 사업에서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포함되지 않음.
-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지원과 관련하여 서비스의 분절 및 지원의 격차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아동보호체계와 여성가족부 산하의 청소년보호체계의 분리되어 운영되는 것과 연관되어 있음(이상정 외, 2020).
 - 아동보호체계와 청소년 복지체계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들 모두 원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동복지시설 또는 청소년 보호시설에서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이상정 외, 2020),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처음 어떠한 보호체계로 진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립지원에 관련된 서비스(자립지원정착금, 심리지원서비스 등)의 내용에 차이를 보임(전민경·이지선, 2020).

- 아동보호체계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과 같이 청소년 복지체계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도 퇴소 후 자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자립을 위한 지원이 부족한 관계로 자립에 있어서 더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나타남.
- 일탈 청소년, 가정 외 청소년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가진 상황과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립지원 은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이 사회적으로 자립을 하는 데 이중적 어려움을 주고 있음.
- 보건복지부의 자립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수당이 도입되면서, 여성가족부에서도 2021년 5월부터 쉼터 이용기간이 2년 이상인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지원수당을 3년간 월 30만원(2023년도부터는 40만원)씩 지원하고 있음.
- 하지만,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하기 위한 지급요건으로 2년 이상의 청소년쉼터 이용 기간을 충족하는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중 자립지원수당 적격자는 2021년 기준 4.4%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남(대한뉴스, 2022.10.25.). 이는 청소년쉼터 평균 이용 기간이 139.5일이지만, 지급요건으로의 청소년쉼터 이용기한을 2년 이상을 충족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등의 청소년복지체계 내에서 자립지원정책이 기관별, 지역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전민경·이지선, 2020). 이에 청소년복지체계 내에서 체계적이며 연속성이 있는 자립지원정책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나타남.
- 따라서 청소년체계 퇴소 청소년의 자립준비를 보다 체계적이며 연속성이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화되면서도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 “청소년 자립준비 영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매뉴얼”을 배포함으로써 7가지 영역(일상생활 관리, 건강관리, 주거관리, 경제관리, 진로·직업, 대인관계, 지역자원 활용)에 있어서 청소년의 자립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표준화된 매뉴얼을 제공함(그림 1 참조).
- 이 매뉴얼의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자립의지, 자립준비도, 활용가능한 자원에 맞추어 차별적으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영역별로 3-6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청소년 자립준비
영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매뉴얼**
현장적용을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프로그램 주요 내용				
영역	목표	도움	주제	활동
일상생활관리	스스로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	1	음식/주방관리	식단 짜기 식재료 구입하기 요리하기
		2	의복관리	옷 구입하기 옷 관리하기
		3	금품관리	집 청소하기 분리수거 하기
		4	안전/비난	안전행동 체크리스트 살펴보기 · 건강검진 의무 확인 및 관련 정보 알아보기
건강관리	신체, 정신, 생활 건강을 관리하는 습관을 기른다.	1	신체건강	· 식습관 조절 및 식생활 기록 하기 · 건강검진 의무 확인 및 관련 정보 알아보기
		2	정신건강	정신건강 자가진단 실시하기 스트레스 관리방법 찾기
		3	성보호	· 성안전지킴이 활동 및 성폭력 예방하기 · 위험으로부터 탈피하기 · 안전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
주거관리	주거지 선택과 계약을 위해 필요한 용어와 유의사항을 익힌다.	1	주거관리	· 부동산 방문하기 · 임대료 지불하기
		2	주거지 선택	· 집 계약 하기 · 임대료 지불하기
		3	집 계약	· 집 계약 하기 · 임대료 지불하기
경제관리	합리적인 지출 및 수입을 관리할 수 있다.	1	재정계획	· 예산/예산서 작성하기 · 예산/예산서 관리하기
		2	합리적 소비	· 합리적 소비 습관 기르기
		3	재정관리	· 금융기관 이용 및 선택하기
		4	신용관리	· 신용/신용등급 관리하기
		5	금융기관 내외	· 금융기관 이용 및 선택하기

〈그림 1〉 청소년 자립준비 영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매뉴얼

- 최근 국내외 연구에서는 아동보호시설과 청소년보호시설의 청소년의 지능이 일반가정의 아동보다 18~20점 정도 낮은 것으로 보고됨(김현주 외, 2022, p. 441에서 재인용).
- 아동자립지원단의 2013년도 조사에 따르면, 전체 보호아동 중 15.6%가 경계선지능(IQ 71~84) 판호 추가완료 또는 의심을 받는 것으로 보고됨.
- 이러한 결과는 아동보호체계와 청소년보호체계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 중 상당수가 경계선지능을 가지고 자립과정을 준비할 수 있음을 의미함.
- 자립을 준비하는 것을 지원하는 실무자들의 경우 이러한 경계선지능 또는 의심 청소년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됨(김현주 외, 2022; 손선옥·박현용, 2022),
 - 경계선지능 청소년의 경우 지적장애와는 다르게 임상적인 장애로 분류가 되지 않는지만, 일반적인 청소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인지기능, 사회성 등에 낮은 수준을 보임. 따라서 학업, 진로/취업, 경제생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증가하는 것과 함께 사회적으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경계선지능 청소년의 자립지원이 점차 사회적 논의의 주제로 부상하고 있음.
 -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자립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는 자립이 가능한 정도의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청소년 복지시설의 대상자라는 이유로 아동복지체계의 대상자와 자립 과정을 지원받는 데 차이를 겪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크게 구분됨.
 - 가정에서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자립에 국가와 사회가 지원 체계를 정비하려는 노력은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해야 하는 국가와 사회 책무라는 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정책적 변환임.
- 하지만 청소년 복지시설을 퇴소하는 경계선지능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과학적 증거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으로 이들에 대한 자립지원 방향은 (의→은으로 수정완료) 여전히 많은 과제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경계선지능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된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경계선지능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과학적 지식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등의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퇴소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지원되는 프로그램의 내용, 자립과정,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성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하지만 실무에서는 경계선지능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거나 제공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임.
- 이를 위해 현재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경계선지능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의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살펴본 후, 프로그램의 성과를 점검함으로써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경계선지능 청소년 자립지원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본 연구가 수행되기 이전,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손선옥·박현용(2022)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경계선지능 청소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실무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탐색하였음. 이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바라보는 경계선지능 청소년의 특성과 자립 가능성을 탐색함.
- 특히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 경계선지능 청소년의 다양한 특성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들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통하여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을 논함.
- 본 연구에서는 이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복지시설에서 경계선지능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성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함.
-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청소년복지체계에서의 자립지원 현황에 대해서 살펴본다.
 - 둘째, 국내·외 청소년자립지원과 관련된 프로그램 및 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 셋째,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경계선지능 청소년을 대상으로 현재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구성과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2절 연구의 수행체계

- 본 연구의 연구수행 체계는 다음과 같음.

〈표 1〉 연구수행 체계

정책환경분석	• 정책분석	• 청소년복지체계 자립지원 • 경계선 청소년관련 정책, 입법
주거지원 사업 분석	• 프로그램 논리모델 확인 • 참여자 자립역량 평가	• 프로그램 논리모델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구성요소 도출 • 양적 분석 • 질적 분석
	• 자립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비교	• 질적 분석
청소년복지시설 자립지원 발전방안	• 실무자의 경험 분석	• 질적 분석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경계선지능

청소년 자립준비 주거지원사업 성과에 관한 연구

02

이론적 배경

- 1절 청소년복지체계에서의 자립지원 대상 현황 및 특성
- 2절 우리나라 청소년복지체계의 자립지원
- 3절 경계선지능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동향
- 4절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경계선지능 청소년 주거지원사업의 경과

2장 이론적 배경

1절 청소년복지체계에서의 자립지원 대상 현황 및 특성

- 청소년복지체계의 자립지원에 대한 현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수적임. 특히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청소년복지시설 중 다수를 차지하는 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특성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는 것이 이들에 대한 자립 지원을 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됨.
-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음. 또한, 청소년자립지원관 입소자 및 이용자에 관한 통계가 구축되지 않은 관계로 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특성을 살펴 보고자 함.

1.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의 특성

- <그림 2>는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청소년들이 가진 주요 문제는 가족해체와 가족 갈등과 같은 가족 내 문제로 인하여 원가정으로부터 분리된 경우가 60.7%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일탈·비행이 16.7%, 학업과 진로 문제 14.6%의 순서로 나타남(이상정,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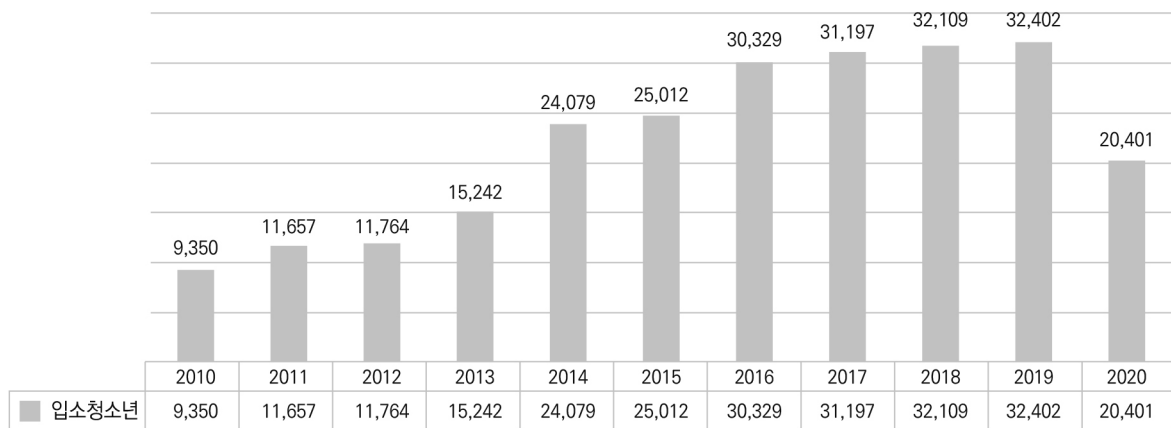
(단위: 명, 건)



※ 출처: 이상정 외(2021)의 내용을 수정하여 활용함.

<그림 2> 청소년쉼터 입소자의 주요 문제

- 이는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청소년도 아동보호체계에 있는 청소년과 동일하게 원가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청소년보호체계로 들어왔다는 점과 자립을 하는 과정에서도 원가정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줌(이상정, 2021).
-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하게 되는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은 가정으로부터 적절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립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
 - 이들은 가족해체나 가족갈등으로 인하여 정서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하여 우울, 불안, 공격성 등의 심리적 문제를 보일 수 있음.
 - 또한,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보호와 도움을 받는 청소년과 비교하여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건강유지, 일상생활기술이나 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기회가 부족하므로 자립을 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함(손혜옥·최외선·이미옥, 2008)
- 청소년복지시설 중 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청소년쉼터 입소 현황은 <그림 3>와 같이 2010년 9,350명에서 2019년 32,402명으로 증가하였고, 2020년은 20,401로 감소함.
 - 2020년에 입소자가 감소한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으며, 추후 입소 현황 자료를 통해서 입소자의 추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출처: 청소년정책분석센터(출력일: 2022년 12월 26일)

<그림 3> 연도별 청소년쉼터 입소 현황

- 한편, 청소년쉼터 후 퇴소 사유는 가정복귀가 전체 약 50%로 가장 많음. 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쉼터를 퇴소하는 사유로는 자립생활 욕구로 합의퇴소가 6,420(26.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타기관으로 연계가 2,234명(9.4%)로 나타남. 반면 취업·창업으로 인한 자발적인 퇴소는 367(1.5%)로 낮게 나타남.

〈표 2〉 청소년쉼터 퇴소 사유

사유	명 (비율)	가족복귀 제외한 비율
가정복귀	10,974 (46.0%)	-
7일간 보호기간 만료(단기쉼터)	872 (3.7%)	6.8%
보호기간 만료(단기, 중장기쉼터)	91 (0.4%)	0.7%
취업, 창업으로 자립 퇴소	367 (1.5%)	2.8%
학업, 대안학교, 기숙사 입소	145 (0.6%)	1.1%
타기관 연계가 필요하여 이관	2,234 (9.4%)	17.3%
구속 등 법률기관 강제이관	95 (0.4%)	0.7%
규율 위반으로 강제퇴소	239 (1.0%)	1.9%
무단퇴소	567 (2.4%)	4.4%
자립생활 욕구로 합의퇴소	6,420 (26.9%)	49.8%
군입대, 입소 퇴소	1,872 (7.8%)	14.5%
계	23,876 (100.0)	12,902(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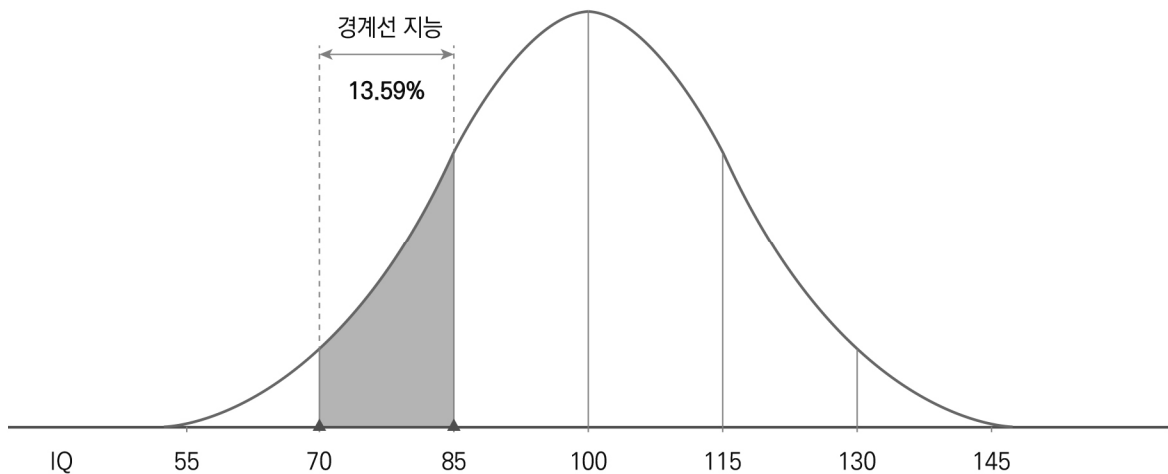
※ 출처: 이상정 외(2020)의 자료를 수정하여 활용함.

- 가정복귀를 제외한 인원 중 50%는 자립생활 욕구로 합의퇴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즉 가정복귀를 하지 않는 청소년 다수는 자립생활에 대한 욕구가 많은 것을 보여줌.
- 청소년쉼터에서의 공동생활이 아닌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자립생활 욕구로 퇴소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들 중 대다수는 안정적인 주거관리, 경제관리, 일상생활관리 등과 같은 자립에 있어서 필요한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상황에서 퇴소함(이상정 외, 2021).
- 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은 다양한 이유로 입·퇴소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 기관에서 이들에 대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체계적인 자립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음. 즉 자립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체계적으로 습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퇴소를 하여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줌.
- 선행연구에서는 퇴소를 준비하는 청소년쉼터 청소년의 경우, 퇴소 이후의 경제적 어려움, 직업 구직의 어려움, 사회적 지지체계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함(남미애, 2012; 장주현·김정애,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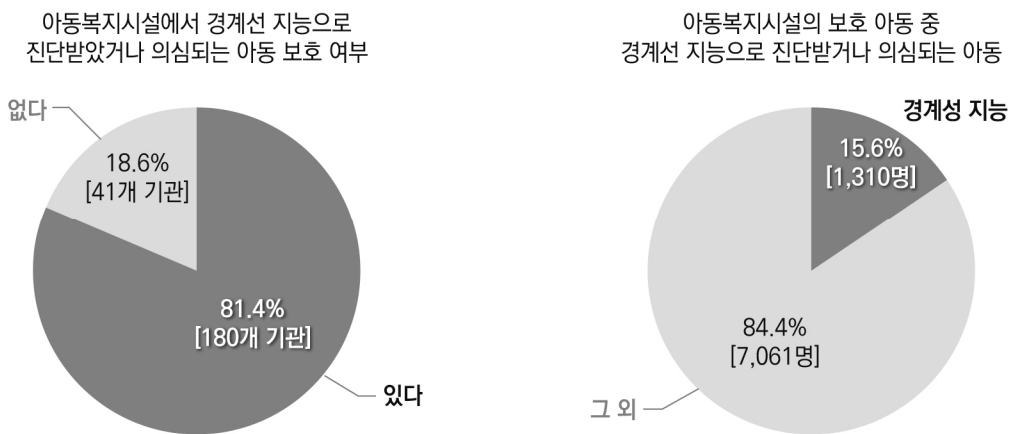
2. 경계선지능 청소년의 특성

- 경계선지능(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은 장애로 판정되지는 않지만, 삶의 질(Quality of Life)과 취업·직업유지 및 사회활동 참여 등의 개인의 일상적인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조건임. 경계선지능이란 지능지수(IQ) 70 이하인 지적장애에는 속하지 않는 지능지수 71 이상 84 이하의 개인을 말함.
- 우리나라에서는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에 관한 실태조사는 최근에서야 시도되기 시작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정규분포를 고려한다면 지능지수(IQ) 71~84의 경계선지능 인구는 〈그림 4〉와 같이 약 13.6%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강옥려, 2016; 정희정·이재연, 2008).

- 국내 선행연구에 따르면, 81.4%의 아동양육시설 실무자가 경계선지능 청소년 혹은 의심되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에 참여한 기관들 중 15.6%가 경계선지능 또는 의심이 되는 청소년으로 나타남(아동자립지원단, 2013).
- 국외의 연구에서는 경계선지능 인구의 비율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음. 예를 들면, 경계선 지능 또는 의심되는 인구 비율이 스페인의 연구에서는 3%이지만, 영국에서는 12.3%로 보고 됨(Catalunya, 2018. p. 6에서 재인용).



〈그림 4〉 지능지수의 정규분포 상 경계선 지능(IQ 71~84) 구간



※ 출처: 아동자립지원단. (2013) 자료 재구성.

〈그림 5〉 아동복지시설 경계선 지능 아동 현황

- 현장실무자는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의 양육 및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 됨. 또한, 경계선 지능의 소견을 갖는 아동·청소년의 약 45%가 사회복지시설 내 다른 아동들과 함께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평가함(아동자립지원단, 2013).

- 경계선지능 청소년은 일반청소년에 비교하여 정서·대인관계 문제에 취약함(정희정·이재연, 2008; Masi et al., 1994; Peltopur et al., 2014). 이러한 특성은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것과 동시에 자립 이후에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음.
- 경계선지능 청소년은 하나의 공통적인 특성이 있는 집단이라기보다는 다양한 특성이 있는 이질적인 특성을 가진 집단이며, 다양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적인 사람과 동일한 기능수준을 보이며, 매우 제한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완전히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경계선지능을 가진 개인도 있는 반면, 일부 경계선지능을 가진 개인의 경우에는 지적장애를 가진 개인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이 필요함(Baxter et al., 2006).
- 경계선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높은 비율이 경계선지능이라는 조건과 함께 정신건강문제를 동시에 경험하는 공존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 특히 경계선지능을 가진 대상 중 적어도 25%의 인구가 인지적인 능력의 제한과 관련하여 정신과적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Catalunya, 2018, p. 8에서 재인용).
- 영국의 “British National Survey of Psychiatry Morbidity”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2.3%의 표본이 경계선지능을 가진 것으로 보이며, 이 집단의 경우 우울, 불안, 신경증적 질환, 인격장애, 약물중독의 문제가 일반적인 지능지수를 가진 집단에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확인함(Catalunya, 2018, p. 8에서 재인용).
- 즉 아동보호시설 및 청소년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경계선지능을 가진 아동·청소년의 퇴소 후 자립은 일반적인 아동·청소년과 자립과 비교하여 더 어려운 상황임
- 생애초기 경험한 부정적 경험을 극복하고, 성년으로 성공적인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심리정서 치료 및 서비스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을 포함한 광범위한 수준에서 맞춤형 지지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준비

-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의 자립준비 정도는 아동복지체계의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음(조규필, 2016; 이상정 외, 2020).
- 주된 이유로는 입·퇴소를 반복하는 청소년쉼터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설명되기도 함(이상정 외, 2020). 즉, 체계적이면서 통합적인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연속성이 필요하지만, 입·퇴소의 반복이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제한을 주며, 청소년이 자립을 위한 충분한 수준의 일상생활관리 기술, 사회적 기술 등을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줌.
- 하지만 아동보호체계와 청소년보호체계에서 보호를 받다가 보호가 종료되고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는 모두 청소년이 위기를 겪게 되는 것으로 나타남(이상정 외, 2019; 장정은·전종설, 2018).
- 자립의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경제적 어려움, 주거 문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체계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이들은 보호를 제공받던 서비스 체계가 다를 뿐, 동일한 욕구와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자립준비와 보호종료 및 퇴소 후의 자립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상이하지 않게 제공될 필요성을 보여줌(이상정 외, 2019, 2020).
- 청소년쉼터에서 퇴소를 앞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퇴소 준비와 이를 지원할 사회적 지지체계는 부족함(장주현, 김정애, 2015; 정문진, 김수정, 2016). 특히 사회적 지지체계가 이전에 만났던 실무자나 또래라는 한정된 사회적 관계망은 이들의 자립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보임.
- 청소년보호체계의 청소년들은 일반적인 청소년보다 스트레스 수준은 높고, 자존감과 사회적 역량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취업 계획은 더 갖고 있지만, 그에 맞는 교육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박혜정·김은정, 2018).
- 청소년보호체계에서 자립을 시도한 청소년의 경험을 살펴보면, 희망과 함께 시작하지만 반복되는 실패로 인하여 절망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김은영, 2019). 특히 안정적인이지 않은 주거 문제와 취업과 연관된 경제적인 문제는 청소년보호체계에서 퇴소하는 청소년의 자립에 어려움을 주고 있음.
- 따라서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립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립정착금과 안정적인 주거 지원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성공에 성공적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함(박혜정·김은정, 2018).

2절 우리나라 청소년복지체계의 자립지원

- 청소년복지시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 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로 분류 됨.
- 이 중에서도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임.

1. 청소년쉼터

- 청소년쉼터는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보호가 주된 활동이지만, 정서적 지지 및 심리상담, 주거지원, 의료지원, 학업복귀, 자립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되어 있음(여성가족부, 2022).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가족부 현황에 따르면 2022년 7월 31일 기준으로 전국에 137개의 청소년쉼터가 있는 것으로 보고됨.

〈표 3〉 청소년쉼터 현황(2022.7.31.)

지역	청소년쉼터 수	지역	청소년쉼터 수
서울	16	강원	9
부산	5	충북	7
대구	6	충남	9
인천	8	전북	6
광주	5	전남	4
대전	6	경북	7
울산	5	경남	5
경기	33	제주	6

※ 출처: 여성가족부 공공데이터포털

■ 〈표 4〉에서는 청소년쉼터의 유형과 서비스와 지향점을 확인할 수 있음.

- 일시, 단기, 중장기로 나뉘는 쉼터 중 중장기 쉼터는 2022년 7월 31일 기준으로 37개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중단기 쉼터는 3년 이내의 보호서비스 제공 기간 (1회 1년 연장으로 최대 4년)을 보장하며, 가정복귀가 어려운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보호서비스와 함께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표 4〉 청소년쉼터 유형별 주요 서비스 기능과 지향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보호 기간	24시간~7일 이내 일시보호	3개월 이내 단기보호 (최대 9개월까지 연장가능)	3년 이내 중장기보호 (1회 1년에 한하여 연장가능)
이용 대상	가출·거리배회·노숙 청소년	가출 청소년	자립의지가 있는 가출청소년
핵심 기능	일시보호 및 거리상담 지원 (아웃리치)	심리·정서 상담지원 사례관리를 통한 연계	심리·정서 상담지원, 학업지원,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지원
기능	• 위기개입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 가정 밖 청소년 조기구조·발견, 단기 청소년 쉼터와 연계 • 먹거리, 음료수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등 • 의료서비스 지원 및 연계	• 가정 밖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치료 및 예방활동 • 의식주, 의료 등 보호서비스 제공 • 일시·중장기 청소년 쉼터와 연계 • 가정 및 사회복지대상 청소년 분류, 연계서비스	•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자립 지원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
서비스 지향	가출예방 조기발견, 초기개입 및 보호	보호, 가정 및 사회복귀	자립지원

※ 출처: 여성가족부(2022) 2022년 청소년사업 안내

- 중장기청소년쉼터에서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만, 자립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서비스 내용은 찾기 어려움(이상정, 2020).
- 2022년 청소년사업소개 안내에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욕구와 특성에 부합하는 청소년쉼터의 기능을 특화하여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자립촉진형 기능특화 청소년쉼터: 경제적 자립 및 독립생활 영위를 위한 개인의 경제교육, 독립거주생활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시하고 있음.
- 경계선 지적 지능 치유형: 경계선 지적 지능 청소년 치유 및 회복을 위한 별도 치료프로그램 운영

- 중장기청소년쉼터 퇴소 시에 청소년과 심층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청소년자립지원관에 대한 안내와 연계를 하도록 함.
- <그림 6>은 2022년 청소년사업소개 안내에 제시된 중장기쉼터 운영모형임.
- 중장기쉼터의 자립지원서비스의 활동요소는 학업지원과 직업지원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성과측정은 학업취득과 취업인원 등으로 성과를 산정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음.

이용대상	목적	서비스 요소	활동내용	산출근거	성과
자립 지원이 필요한 갈 곳 없는 청소년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보호	• 생활지원 • 건강지원 • 상담지원 • 청소년 활동지원	• 의식주지원건수 • 의료지원건수 • 개인·집단상담건수 • 청소년활동 참여건수	• 보호인원 • 만족도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립지원	• 학업지원 • 직업지원	• 교육지원건수 • 자립지원건수	• 학업취득 인원 • 취업인원
	청소년이 가정·사회에 복귀하도록 돕는다	가정·사회 복귀지원	• 가정·사회 적응지원	• 사후관리 건수	• 가정·사회 복귀인원

※ 출처: 여성가족부(2022). 2022년 청소년 사업안내

<그림 6> 중장기쉼터 운영모형

- 하지만 <표 5>의 청소년쉼터 유형별 배치기준에서 볼 수 있듯이, 청소년쉼터에는 자립지원전담요원과 같이 자립을 지원하는 별도의 전담 인력이 부재함.

<표 5> 청소년쉼터 유형별 인력배치 기준

구분	일시 청소년 쉼터	단기 청소년 쉼터				중장기 쉼터
		10인 미만	10~15인 미만	15~20인 미만	20~25인 미만	
시설장	1	1	1	1	1	1
보호·상담원	4	2	3	5	6	2
자립지원 요원	-	-	-	-	-	-
행정원/조리원	1	1	1	1/1	1/1	1
합계	6	4	5	8	9	4

- 또한, 입소 청소년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아동발달지원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 CDA) 등 자산형성 프로그램과 퇴소 시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2021년도부터 여성가족부에서는 쉼터퇴소 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매월 30만원으로 현금 지급을 하고 있음. 하지만 대상자의 일반적인 선정 기준은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청소년(직전 1년은 연속하

여 보호)인 경우로 제한되어 있음. 이는 청소년쉼터 평균이용기간이 약 140여일인 것을 고려한다면 매우 제한된 수의 청소년만이 대상이 되는 한계점이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쉼터를 퇴소하는 청소년 가운데 대다수는 안정적인 주거 대안과 경제적인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퇴소하게 됨(이상정, 2020).
- 2020년 국토부 훈령의 개정으로 쉼터 퇴소 청소년이 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 대상으로 되어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하지만 신청 자격에 있어서 쉼터 이용기간이 2년 이상인 18세 이상의 미혼 주택자로 되어 있음. 앞의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과 같이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되는 것으로 판단됨.
- 쉼터퇴소청소년이 주택 임대계약을 통보받은 자치단체에서는 관내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사후 관리기관으로 지정·통보하여 사후관리를 입주 후 1년간 의무(필요시 추가 1년을 포함하여 최대 2년)로 진행함.

2. 청소년자립지원관

- 청소년 쉼터와 달리 위기청소년들의 자립지원을 위해 비교적 최근에 설치되기 시작한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로 정의되며, 2022년 9월 30일 기준으로 전국 11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2012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로 설치운영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국비 지원은 2018년부터 시작되었음. 2022년 청소년자립지원관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은 50:50으로 되어 있음.
-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청소년이 독립생활을 계획할 경우, 주거비 부담 및 계약 관련 지원과 지출관리, 가사 관리 등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하지만, 자립지원관의 충분하지 못한 운영비로 월세지원, 생활관 입소, 경제관리(금융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가 직접 서비스로 제공되기 보다는 간접서비스로 연계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음(이상정 외, 2020).

〈표 6〉 청소년자립지원관 자립지원 서비스 내용

	이용형	혼합형
지원내용	[주거연계] + 자립지원서비스	[주거연계 + 생활관 운영] + 자립지원서비스
생활관 이용	-	생활관 입소는 사례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최소3개월이내(추가3개월 연장 가능)
지원내용	자립역량(수준)평가, 개별화된 자립계획수립, 주거지원, 독립생활, 사후관리	
지원기간	기본 1년 이내(6개월씩 2회 한도 연장 가능), 지원종료 후 사후관리(6개월 이상)	

※ 출처: 여성가족부(2022). 2022년 청소년사업 안내 일부 수정

- 청소년자립지원관은 <표 6>와 같이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 수 있도록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표 7〉 청소년자립지원관 자립지원서비스 예시

	서울시립 청소년자립지원관	경기남부 청소년자립지원관	인천별바라기 청소년 자립지원관	인천행복자리 청소년자립지원관	성남시 청소년자립지원관
1. 주거지원	월세지원 (20만원)	월세지원(35만원), 주거환경조성 (50만원), 고시원 입주식 (10만원)	고시원 비용 (35만원), LH연계	월세지원(35만원), LH 연계 등	월세지원 (최대 30만원), LH연계
2. 경제적지원	생필품 및 먹거리지원, 의류지원, 긴급지원	생필품지원, 특별생필품지원	생필품지원	물품지원, 생계지원 (식재료지원), 절기특별지원 등	생필품 지원, 의류 지원
3. 학업/취업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자격증/학위취득, 취업준비/교육	편의점 인턴십 프로그램	진학상담, 취업정보제공 등, 진학·학업 복귀지원, 자격증취득 등	교육 및 자격증 취득 지원
4. 심리정서적 지원	심리상담지원	종합심리검사, 초기검사, 전문상담, 정서지원, 사례수퍼비전	심리정서지원	개인상담, 정신건강지원 등	상담지원, 심리 지원
5. 자립능력 지원 (일상생활능력 관련)	자기개발교육, 진로교육	일상생활교육 (자립준비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자립교육 (쉼터퇴소예정 청소년대상), 간담회 (쉼터실무자 대상)	예방교육 (모의훈련, 안전교육, 기타교육), 인권관리(자치회의, 청소년 권리교육)	안전교육, 부동산교육, 경제교육, 성교육, 일상생활교육, 인권교육 등	일상생활교육 및 경제, 진로에 필요한 교육
6. 사례관리	사례연장, 사례회의, 사례관리, 사례심의, 자립준비척도 및 자립계획지원 등	사례지원 (사후관리 포함)	입퇴소지원, 주부식 및 야간보호 및 안전관리 등	사례회의 등	일상생활 확인, 교류활동 지원, 문화활동
7. 의료지원	의약품 및 의료 지원	응급의료, 건강검진, 실손보험	의료지원	의료지원, 의약품 지원,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치과검진 및 치료, 흉터치료 지원 등	병원진료, 상비약품 지원, 코로나 19 예방용품 지원
8. 사회생활 및 문화생활 지원		정서나눔활동, 성장나눔활동	명절 프로그램, 문화체험활동		
9. 특화사업	자산형성지원, 자치회지원, 첫 입주지원			자립청소년집들이	외부 생활관 운영, 독립된 주거환경 조성

-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운영원칙은 자립지원준비청소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체계적인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지원에 대한 효과를 높이는 것임.

- 사례관리 대상자별로 개별자립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 대상자별 상황과 욕구에 따라 주거지원, 진학·취업지원, 생계·금융지원, 건강·일상지원을 제공
- 자립활동실비 지원
- 자립준비청소년의 주거불안 문제 해결 및 주거안정확보, 취업상태 유지, 학업지속 등을 지원

-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규정에서는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를 통하여 사례관리 대상 자립준비 청소년의 보호와 자립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수한 사례 및 프로그램을 공유하여 성과를 확산시키는 것을 강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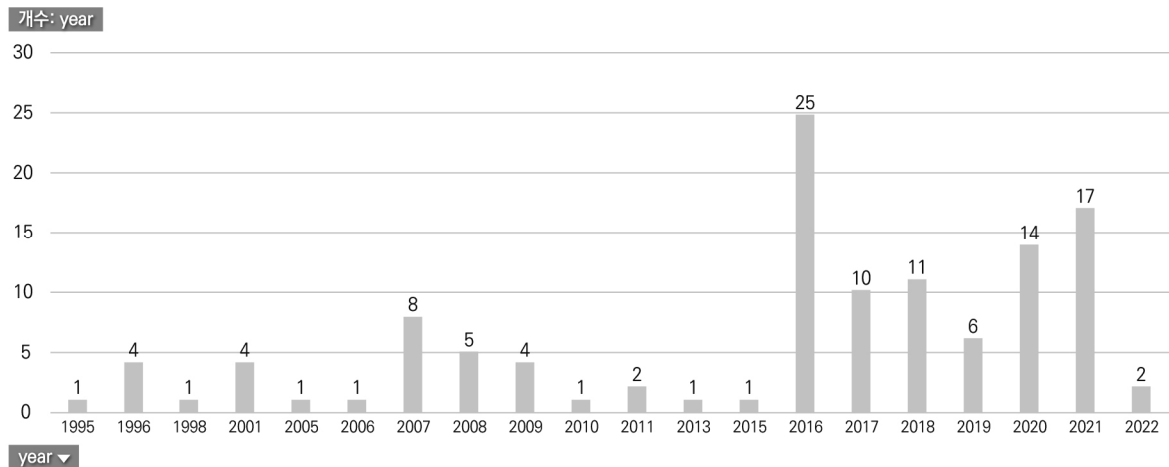
3. 청소년자립지원 체계에 대한 소결

- 청소년복지체계에 속하는 중장기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퇴소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중장기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의 자립지원에 있어서 경계선지능청소년에 대한 자립에 대한 논의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아동보호체계에서는 2013년 아동자립지원단에서 가정 외 보호 경계선지능 아동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하지만 다수의 프로그램은 경계선지능 아동의 인지능력과 학습능력 향상, 문제행동 개선 및 대인관계 기술향상 등의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 경우가 많음.
- 아동자립지원단(2017)에서는 경계선지능 아동자립지원을 위한 자립지원매뉴얼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2016년과 2017년에 2차에 걸쳐 자립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였음. 이를 통하여 자립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의 사회적 기술과 자립기술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음. 하지만 이러한 평가는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대상으로 퇴소 후에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통하여 효과성을 측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음.
- 아동보호시설이나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경계선지능 청소년의 자립에 대한 실제 상황에 대한 지원실태와 이들에 대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는 제한적임.

3절 경계선지능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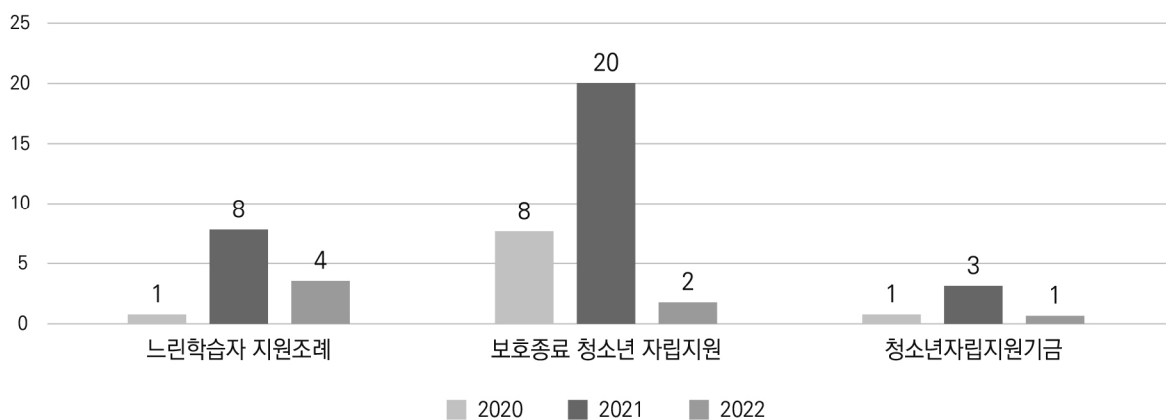
1. 학술적 논의 동향과 일선 지역 조례 제정 현황

- 국내 학술지(KCI)에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에 관한 문헌의 동향을 살펴본 결과, 1995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약 119편의 연구가 발표됨. 이들 연구는 경계선 지능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살펴보는 의학적 논의와 인지·행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심리학적 접근, 정서·사회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적용 등 교육, 치료적 접근이 대부분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학적 관점에서는 국내연구 동향이나 심리학에서 발표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메타 분석한 연구 2편에 그침.
- 흥미로운 점은 2016년 이후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교육, 치료적 접근에 관한 논의가 증가한 이후, 2020년 서울시 조례를 시작으로 경계선 지능에 관한 지원 방안이 빠르게 마련되기 시작한 것임.



〈그림 7〉 1995~2022. 7까지의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에 대한 KCI 논문 수

■ 2020년 이후 현재까지 보호종료 및 경계선 지능에 관한 지자체의 조례 제정 현황은 다음과 같음.



〈그림 8〉 경계선지능 청소년 지원 지자체 조례 현황

2. 정부의 청소년자립지원에 관한 정책의 변화

- 현재 우리나라는 학대를 비롯해 여러 이유로 가정 내에서 권리를 존중, 보장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보호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에서 분절적으로 이루어짐.
- 보건복지부의 아동보호체계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보호체계가 이질적일 이유가 없지만, 서비스 전달체계와 서비스 급여가 상이하게 작동되고 있음. 하지만, 두 체계의 대상자인 아동과 청소년들은 서로 동일한 대상자임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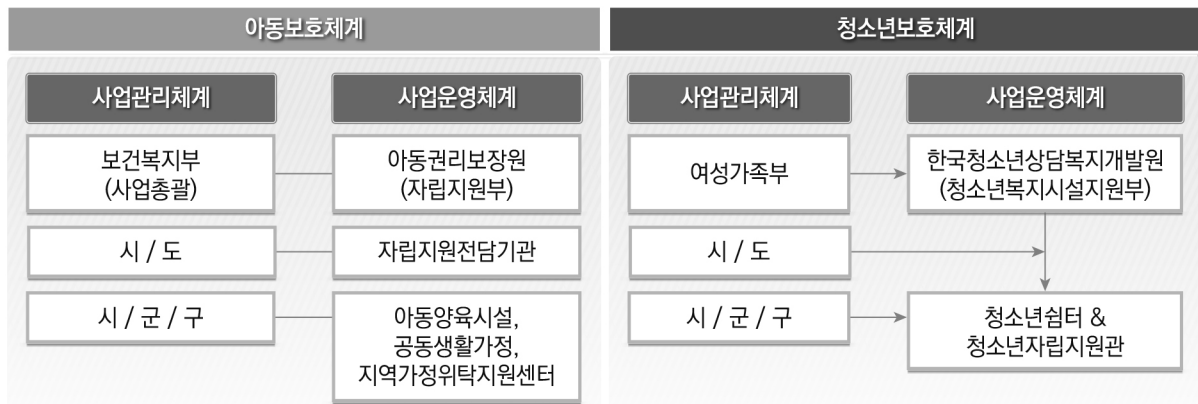
〈표 8〉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 비교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대상	18세 미만인 사람	9세 이상~24세 이하
정의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함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함
보호대상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의 아동을 말함	가정박청소년이란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 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함.

※ 출처: 정선욱(2021). 아동보호와 청소년보호가 달라야 할 이유가 있는가?, 보건복지포럼.

1)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자립지원 서비스

- 동일한 대상에 대해 제공하는 자립지원 서비스는 소관 부처에 따라서 상이한 전달체계가 작동되고 있음. 다음의 그림과 같이 보건복지부의 아동보호체계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보호체계의 자립지원 체계는 서로 다른 서비스 기관에서 자립지원서비스가 이루어짐.



※ 출처: 전민경(2022).

〈그림 9〉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자립지원 체계 비교

- 이와 같은 전달체계의 차이에서 주목할 점은 아동보호체계와 청소년보호체계에서 작동되는 서비스 기관의 설치, 운영, 성격의 차이임.
- 아동보호체계에서 자립지원이 제공되는 서비스 세팅은 크게 4가지 유형의 기관임. 반면, 청소년보호체계는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임.
-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 240여개, 공동생활가정 507개, 가정위탁 8955세대, 자립지원시설 14개소임. 한편, 청소년보호체계는 청소년쉼터 131개소, 청소년자립지원관 6개소임.
- 아동보호체계는 아동기부터 안정적인 보호체계 속에서 15세 이상이 되면 자립계획을 수립함. 반면, 청소년보호체계의 쉼터는 최소 24시~7일, 최대 3년 이내 보호를 제공하고 청소년자립지원관은 6개월~1년 이내로 보호기간이 짧음.

〈표 9〉 아동청소년보호체계 자립지원 서비스 주요 현황

체계	아동보호체계				청소년보호체계	
시설종류	아동양육 시설	공동생활 가정	가정* 위탁	자립지원 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 자립지원관
운영기관수	240	507	8,955	14	131	6
보호기간	18세 미만			취업 중 시설퇴소 아동우선 24세 이하	• 9~24세 이하 • 일시 24시간~7일 • 단기 3개월 이내 (최장 9개월) • 중장기 3년 이내 (최장 4년)	• 19~24세 우선 • 숙박형(3개월 이내) • 자립지원 6개월 (1년 이내)
자립계획 수립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15세 이상 의무			-	단기 1주내 개별계획 중장기 10일 이내 독립생활계획서 작성	지원종료 후 6개월 간 사후관리

* 가정위탁의 단위는 세대 수

※ 출처: 이상정(2019)의 자료를 수정하여 활용함.

-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이분법적 전달체계는 예산 편성을 통해서 극명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음. 2023년 보건복지부는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급과 체계구축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만, 여성가족부에서는 관련 항목을 찾기 어려운 상황임.

〈표 10〉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관련 예산 현황

구분		2022년		2023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B)	증감(B-A)	증감율
보건 복지부	보호종료 아동자립지원	27,467	27,467	43,745	43,745	16,278	59.3
	보호종료 아동자립지원체계구축	7,735	7,735	12,898	12,898	5,163	66.7
여성 가족부	청소년자립 생활관 지원	1,484	1,484	0	0	△1,484	△1,484

※ 출처: 참여연대(2022). 2023년 보건복지분야 예산안 분석:아동청소년분야.

2) 변화하는 보호종료 청소년들의 자립준비 지원제도

- 2021년 정부는 법무처의 보호종료 아동 관련 지원을 방안을 발표함.
- 이에 앞서 인권위는 2021. 4월 보호종료 아동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음. 주요 권고 내용은 정보제공, 주거지원 확대, 자립지원 전달체계 구축, 자립역량 교육 확대, 심리·정서적 환경조성, 진학취업 지원 강화 등임.
-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논의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발표되었으나, 보호종료된 아동의 보호 체계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음.
- 보호종료 아동청소년의 자립지원의 방향은 보호기간 현실화와 전국단위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서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제도적 지원으로 정리됨. 이를 위해서 6대 주요 추진 과제가 설정되었음.

- 추진과제 1: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만 24세까지 보호연장을 강화
- 추진과제 2: 자립의 동반자가 되는 것으로 자립지원전담기관 전국 운영, 자립지원전담인력 확충.
- 추진과제 3: 자립생활의 버팀목을 강화하는 것으로 소득안전망, 주거안전망을 강화.
- 추진과제 4: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돕는 것으로 진로탐색 및 진학기회 확대, 직업 경험 및 고용기회 제공하는 것임.
- 추진과제 5는 마음의 안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심리정서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임.
- 추진과제 6은 제도기반을 다지는 것으로 자립지원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것임.

- 보호종료 아동청소년의 자립지원 과제는 보건복지부를 필두로 하여 교육부, 국토부, 행안부 등 범부처가 협업하여 추진됨. 주요 과제는 다음의 표와 같음.

〈표 11〉 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 주요 과제 개선안

추진과제	현행	개선안
보호연장	만18세+a	만24세 +a
전달체계	8개 시도 지자체 자체 운영 인력부족	자립지원전담기관 전국 17개 시도운영 자립지원관 전담인력 전국 120명 배치
자립수당	보호종료 3년 이내 지급	보호종료 5년 이내로 지급 확대
자립정착금	1인당 최소 500만원	지원금액 상향
생계급여	소득공제 시기 만24세	보호종료 5년까지 변경
주거안전망	보호종료 예정 및 종료 5년 이내 무주택자	보호연장아동 추가
주거비 등 사례관리	10개시도, 377명 지원	17개시도, 1,000명 이상 확대
주택유형	원룸형 주택	중형주택 추가(전세임대), 역세권 등 공급확대(매입임대)
진로상담	-	커리어넷 보호(종료)아동 특화 상담 창구 마련
국민취업 지원제도	-	보호종료아동 특화 취업지원 제도 마련
직업훈련	-	마이스터고 특별전형 포함,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우대
심리정서	지원 부족	보호~종료 심리지원 사업 확대, 심리지원 체계화 방안 마련, 정신건강복지센터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 지원 연계 강화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1)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더 나은 내일로 함께 내딛는 첫발.

<https://www.opm.go.kr/flexer/view.do?ftype=hwp&attachNo=108634>

4절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경계선지능 청소년 주거지원사업의 경과

1. 사업의 배경과 목적

- 아름다운재단·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경계선 지능 청소년 주거지원 사업은 2019년 시작됨.
- 2019년 아름다운재단과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의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의 주거권 옹호 사업’의 후속으로 추진된 2020년 쉼터퇴소 청소년의 임대주택 지원이 결정: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사회적 실험 시도

- 그동안 자립지원에 관한 논의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 청소년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학문적,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본 사업은 최근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사회적 지원 기반에 관한 논의를 정립함과 동시에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자립지원 모델을 확산하는 것에 있음.
- 이를 위해서 아름다운재단과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은 3개년에 걸쳐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에 관한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모델 정립을 위한 개입을 추진해 옴.
- 2020년부터 시작된 사업은 보호종료 청소년들의 자립지원 모델의 성과 확산을 목표로 추진.
 - 특히 보호종료 청소년 중 경계선지능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방법과 성과는 실무자의 구전으로 전달될 뿐, 학문적으로 확인된 증거기반은 찾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이와 같은 한계로 현장에서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난맥상에 놓이게 하는 원인이 축적될 뿐, 이들의 자립에 관한 실천적 지식이 축적되지 못하고 있음.
- 본 사업은 자립의 기반이 되는 주거의 안정성을 기반으로 경제적 자립, 정서, 사회적 자립을 준비하는 통합적 사례관리를 기반으로 추동되도록 설계됨. 무엇보다 원가족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보호종료 청소년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요소로 손꼽히는 주거의 안정성을 보장함으로써, 일상생활 관리와 유지와 금전 활용 및 일자리 유지 등 현실적인 자립 준비를 시도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2020년부터 추진된 사업이 주된 목적과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2. 주거지원사업의 논리모델

- 청소년쉼터 퇴소 경계선지능 청소년 주거지원 사업의 논리모델은 프로그램의 대상 집단과 사업 추진 배경이 되는 체계조건이 무엇인지, 계획하고 실행하는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대상자의 체계 조건과 어떤 논리적 연관성을 가지고 활동을 통해서 기대하는 성과는 무엇인지를 담고 있음.
- 본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와 관련한 사회 환경적 체계 조건은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원가정복귀가 어려운 경계선 청소년들로 한정함. 이들은 아동보호체계와는 달리 자립정착금 등의 지원에서 공백과 격차가 있어서 자립을 이행하는 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됨.
- 더욱이 경계선 지능 청소년들의 자립은 적극적으로 이행되지 못하거나 현장의 실천적 지혜가 정리되지 못하여, 이들에 대한 자립지원에 방법과 전략에 관한 증거기반이 축적되지 못했음.
-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프로그램의 논리모델은 주거옹호부터 경계선 청소년의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세부 활동으로 구성됨.



〈그림 10〉 주거지원사업 논리모델

3. 프로그램 구성요소

- 본 프로그램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지원을 통해서 자립 지원을 함.
- 청소년보호체계에서 자립지원은 크게 취업지원,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의료지원, 자립계획수립을 위한 사례관리로 나뉨(여성가족부, 2022).
- 자립계획수립은 자립준비도 사전-사후평가도를 활용하여 이루어짐. 현재 청소년자립지원관과 청소년쉼터에서는 자립준비도 척도(Independent Living Readiness Scale:ILRS)를 활용함. 이 척도는 자립의지, 진로, 직업역량, 경제적 관리, 주거 및 일상생활 관리, 사회적 기술, 자기보호, 학업관리로 총 7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경계선 지능 청소년 주거지원사업의 프로그램은 크게 주거지원, 커뮤니티 하우스지원과 자립훈련지원으로 나뉘며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됨.
- 자립을 위해 제공되는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구성요소로 파악하면서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과정은 프로그램 개발, 관리와 평가 및 전과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요소로 범주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프로그램은 현장의 활동을 간명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효과성 간의 인과성을 관리할 수 있음(Weiss, 2007; 서인해·공계순, 2013).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경계선 지능 청소년 주거지원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북부청소년 자립지원관의 프로그램 일지와 사업 자료를 분석하였음.
- 본 사업 보고서들은 본 연구의 1차년도에 해당하는 21년도와 22년에 참여하고 있는 6명의 일지를 분석하였음. 2020.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로 참여기간은 대상자에 따라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5개월이며, 이 기간 사례관리 일지를 분석하여 프로그램 요소를 파악하였음.¹⁾
- 연구진은 경기북부자립지원관의 사례관리 및 사업 보고서에서 각 프로그램 요소를 도출한 후, 참여자마다 프로그램 제공 횟수를 산출함.
- 이 같은 과정에서 일지 및 보고서에서 제시된 횟수만을 산출한 것으로 실제 제공한 프로그램과는 상이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 하지만, 이 같은 산출과 분석 과정을 통해서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자립지원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양과 강도에 대한 중요한 실천적 함의를 발견할 수 있음.
- 2020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사례보고서 및 사업일지를 통해서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제공한 프로그램은 다음의 <표 12>와 같음.
- 먼저 프로그램은 직접서비스와 간접서비스로 구분되며, 주거비 지원, 일상생활지원, 일상생활 관리 지원, 의료비 및 취업지원, 관계(사회)성 향상을 위한 지원으로 도출됨. 이와 같은 세부 활동은 사례관리를 통해서 수행되었음.

<표 12> 프로그램 구성요소 분석

실천 활동 기본구조		활동 범주		구성요소		
직접 개입활동	대상자	대상자 모집		대상자 모집 과정		
		문제 및 욕구사정		대상자의 문제와 욕구 사정(자립준비 사전검사)		
	프로그램 활동	자립계획지원(사례관리)		자립 지원 목표 수립, 평가계획(자립준비 종결전검사)		
		주거 관리	주거비 지원		주거지 마련, 이사, 환경지원, 월세지원 등	
			일상생활 관리 지원		주거지 방문 서비스(청소 지원, 가계부 점검 등)	
		일상생활 지원		생계비 지원(월 40만원), 생필품 지원		
		의료비지원		의료비 지원		
		취업지원		운전면허, 각종 자격증 취득지원		
		자립 관련 교육		경제교육, 퍼스널컬러 등 자립 관련 교육		
		커뮤니티하우스		관계적 자립지원		
간접 개입활동	지역사회	연계	개인 상담			
			국민취업제도			
			인턴 기관 발굴			
			심리검사 및 상담			
			청소년복지기관과 정보교류			
	기관 조직 및 행정	기관조직 및 행정 활동	주거옹호 네트워크 활동			
			프로그램과 관련된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프로그램 수행을 매뉴얼 개발, 콘텐츠 제작			

※ 서인해·공계순.(2013)의 논문에서 수정·보완하여 활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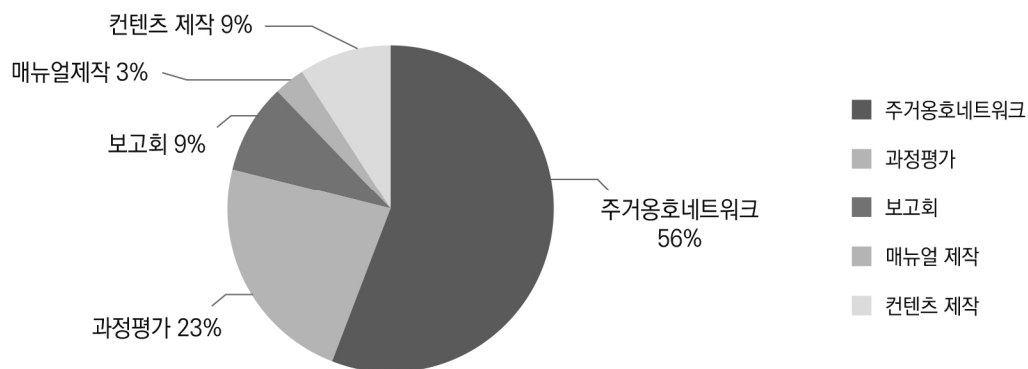
1) 사례일지가 누락되거나 오기된 경우, 프로그램의 구성요소에 확인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프로그램 구성 요소 중 직접개입의 실행 성과는 다음의 <표 13>과 같음. 가장 많이 이루어진 프로그램은 생필품지원(15%), 주거비지원(14%)과 심리상담과 사례관리(각각 13%)의 순으로 나타남.

<표 13> 프로그램 구성요소 중 직접개입 영역의 실행 성과

항목	빈도	백분율(%)
주거비 지원	125	14
생필품지원	138	15
생계비지원	12	1
일상생활관리지원(주거방문)	103	11
의료지원	100	11
심리상담(연계)	120	13
취업지원(교육포함)	97	11
커뮤니티하우스(관계향상)	101	11
사례관리	124	13
합계	796	100

- 한편, 간접 개입활동 중 행정적 개입으로는 주거옹호 네트워크 활동, 매뉴얼 및 콘텐츠 제작, 각종 보고회 등이 이루어짐.



<그림 11> 주거지원사업 간접 개입활동 현황

4. 프로그램 진행과정

1) 프로그램 참여자 현황 및 기간

- 경계선지능 청소년의 주거지원사업은 2020년 4월부터 시작함. 2020년 4월부터 본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12명이며, 2022년 12월을 기준으로 본 사업의 참여 청소년은 6명임. 참여자들의 프로그램 참여 기간은 6개월부터 33개월까지이며, 평균 참여 기간은 약 15.9개월임.
- 참여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참여자 12명 중 여자 청소년이 5명이었고, 남자 청소년은 7명임. 이들의 지능지수는 71~80까지이며, 연령은 만20~25세까지 청소년들로 평균 연령은 약 22세임.

-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종결 사유는 질병 2명, 군입대 1명, 타지역 전출 2명, 가정 복귀 1명, 연락두절 1명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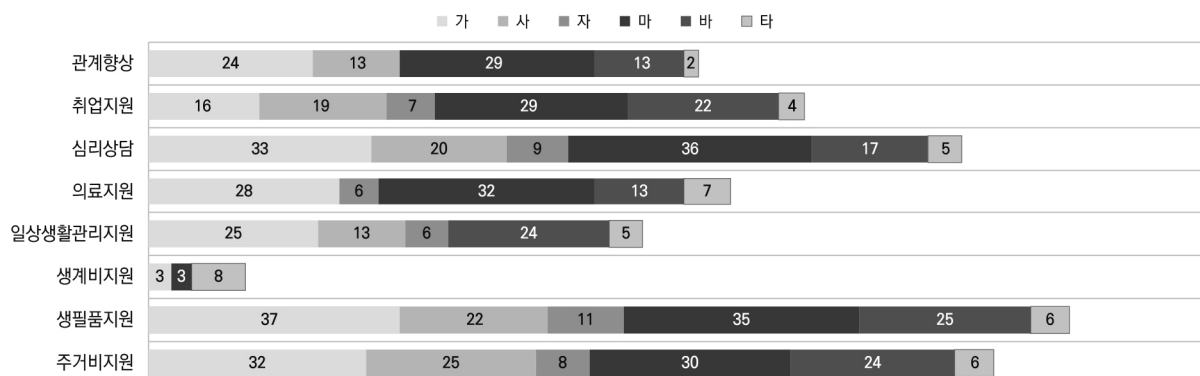
〈표 14〉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주거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현황

(N=12)

참여자	성별	만 나이	지능지수	참여 개월	종결 사유
가	여	21	71	32	2023년 거주지 이동
나	여	21	75	5	질병
다	남	24	76	5	질병
라	남	24	77	17	가정복귀
마	남	22	77	32	-
바	여	20	74	19	-
사	여	23	80	19	-
아	남	24	80	9	타지역취직
자	여	25	73	11	연락두절
차	남	21	77	10	군 입대
카	남	22	71	5	-
타	남	23	74	13	-

2) 참여자의 프로그램 제공 현황

- 본 연구의 1~2차년도 수행기간 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한 6명의 프로그램 참여 현황은 다음 〈그림 12〉와 같음.
- 전반적으로 가장 많은 지원이 이루어진 것은 생필품지원, 주거비지원, 심리상담의 순으로 나타남.
- 프로그램 참여자별로 지원의 양과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개인별로 욕구나 상황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맞춤형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12〉 참여자의 프로그램 제공 현황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경계선지능

청소년 자립준비 주거지원사업 성과에 관한 연구

03

연구방법

- 1절 연구개요
- 2절 연구설계 및 조사대상
- 3절 측정도구

3장 연구방법

1절 연구개요

- 이 연구의 목적은 아름다운재단·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진행한 경계선지능 청소년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성과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계선지능 청소년에 대한 지원방향에 대해서 제언을 하는 것임.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제공하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여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변화와 자립준비정도의 변화양상을 확인하고자 함. 다음으로 경계선지능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준비지원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경계선지능 청소년과 실무자들과의 초점그룹면접을 통하여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제공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의미를 주거안정, 경제적·취업지원, 심리·정서적지원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함.

2절 연구설계 및 조사대상

-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혼합방법연구를 수행함.
- 경계선지능 청소년 주거지원 프로그램 참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2와 자립준비도 척도를 활용하여 사전-사후의 심리·정서·행동문제와 자립준비도의 변화를 확인하였음.
- 우선 초기단계에서 경기북부청소년 자립지원관에서 주거지원 서비스를 받은 총 12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는 시점의 경계선지능 청소년의 지적기능, 심리·정서적 특성 및 자립준비정도를 확인하였음.
-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가 진행된 2023년도 12월을 기준으로 지속해서 경계선지능 청소년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5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정서적 특성 및 자립준비정도의 변화정도를 확인하였음.
- 다음으로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경계선지능 청소년과 초점그룹면접을 진행함으로써 경계선지능 청소년의 자립지원 프로그램 경험 등을 확인하였음.
- 마지막으로 청소년복지시설의 실무자들과 초점그룹면접을 진행함으로써 실무자의 경계선지능 청소년 자립지원 경험을 확인하였음.

3절 측정도구

- 이 연구에서는 심리·정서·행동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초기단계에서 활용된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2(MMPI-2)를 활용하였음. 추가로 자립준비도를 확인하기 위하여서는 5점 척도의 25개의 자기기입식 문항으로 구성된 조규필의 자립준비도 척도를 활용하였음.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경계선지능

청소년 자립준비 주거지원사업 성과에 관한 연구

04

연구결과

1절 표본의 특성

2절 경계선지능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경험 질적 분석결과

4장 연구결과

1절 표본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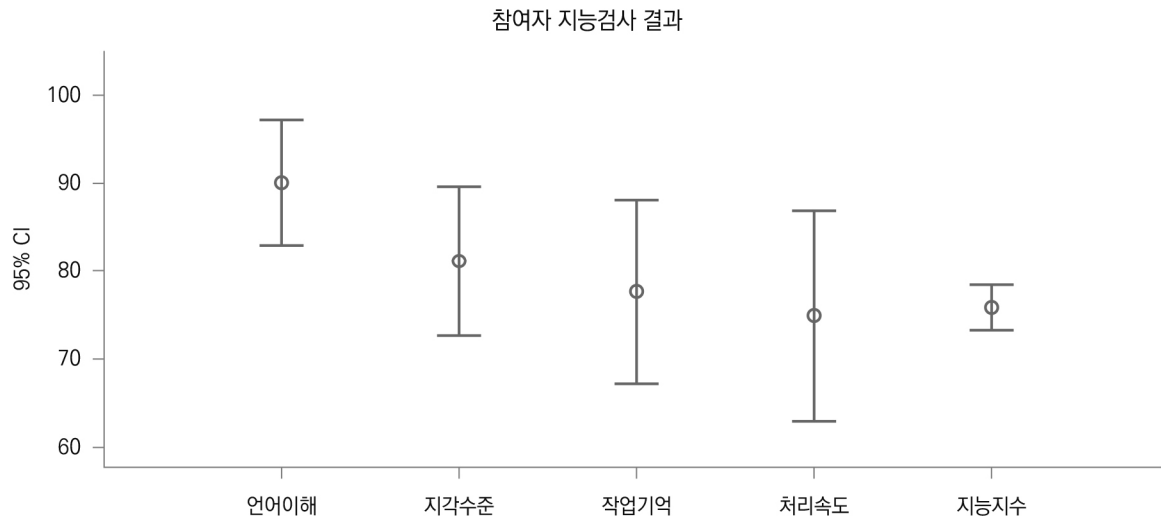
-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진행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경계선 지능 청소년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계선지능 청소년의 수는 12명임(남자 7명, 58.3%, 여자 5명, 41.7%).
-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할 시점의 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21.7세($SD=1.6$)으로 나타났다으며, 가장 어린 나이는 만 18세로 나타났으며, 가장 나이가 많은 청소년은 23세임.
-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11명의 경계선지능 청소년의 종합심리검사결과와 언어이해, 지각 추론, 작업기억, 처리속도의 4개의 지표점수와 전체 지능지수를 살펴보면 다음 <표 15>과 같음.²⁾
-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여자의 지능지수의 평균은 75.0($SD=2.8$)로 나타나, 경계선지능 청소년이 프로그램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가장 낮은 지능지수는 71이었고 가장 높은 지능지수는 80이었음.
- 표본의 수가 적은 관계로 비모수통계를 활용하여 확인한 결과, 처리속도에 있어서 성별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전체 지능지수에 있어서는 성별 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15> 주거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지능검사 결과(N=11)

	언어이해	지각추론	작업기억	처리속도	지능지수
남성	91.0(11.1)	84.8(7.7)	83.8(10.7)	60.0(9.0)	75.3(2.4)
여성	87.4(10.6)	77(13.2)	70.4(12.0)	86.2(10.4)	74.6(2.5)
전체	89.2(10.4)	80.9(11.0)	77.1(12.8)	73.1(16.6)	75.0(2.8)

- <그림 13>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지능지수에 있어서 오차는 적은 편으로 나타나지만, 각 세부지표에 있어서는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특히 처리속도에 있어서는 성별 간의 차이로 인하여 오차범위가 넓은 것을 볼 수 있음.

2) 아름다운재단·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의 주거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중 1명은 종합심리검사결과가 없는 관계로 분석에서 제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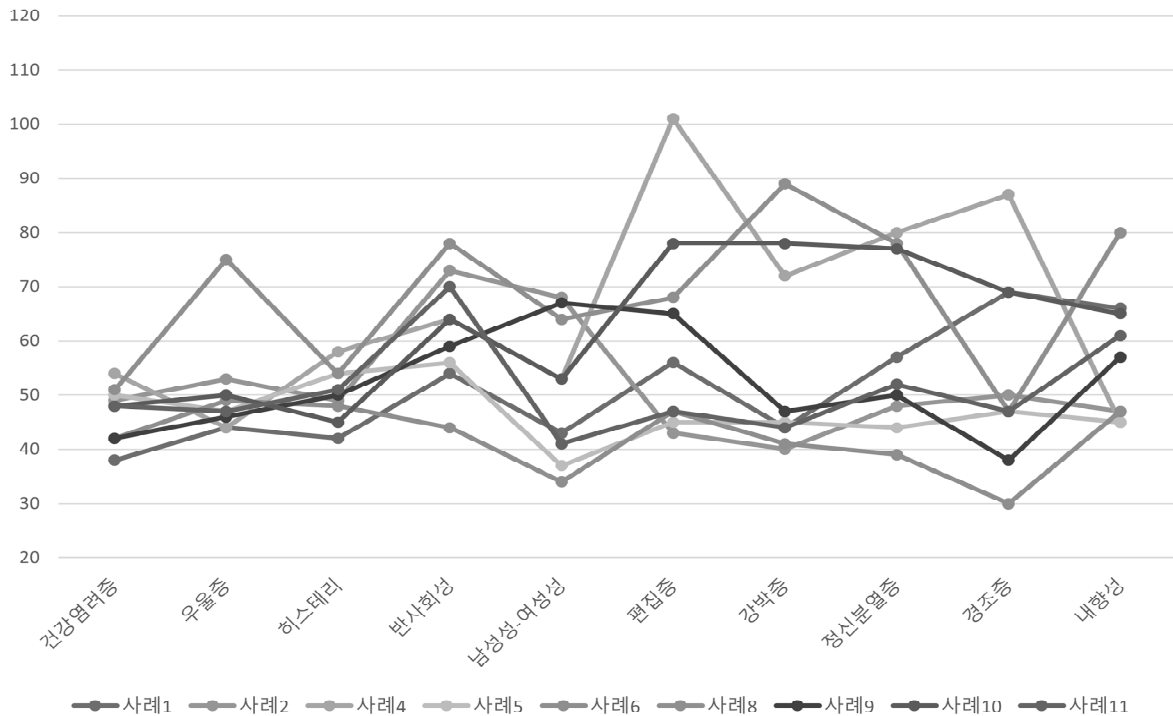
〈그림 13〉 참여자의 지능검사 결과(N=11)

-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의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2에 대한 검사결과를 가지고 있는 9명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표 16>과 <그림 14>는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에 처음 입소할 때 검사한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2의 사례별 결과임.
- MMPI-2 임상척도의 결과를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9명 중 2명(22.2%)의 참여자만 임상적 수치가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6명의 참여자는 일부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줌.
- 참여자 사례 4, 8, 10의 경우에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으며, 타인 혹은 주변에 대해서 적대적인 인식이 있거나, 피해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정서 및 행동상태에 있어서 인내심이 적고 충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참여자 사례 5와 6은 전반적으로 임상척도 결과가 안정적인 것으로 보고됨. 다만, 사례 5의 경우는 앞에서 이야기한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잘 보이기 위해서 호응을 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긍정왜곡의 가능성을 보일 수 있는 사례임. 예를 들면,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생존을 위해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하려는 듯한 반응을 보임.
- 일부 청소년의 경우 방어적인 태도로 검사에 응답하는 경우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표 16〉 MMPI-2 임상척도 결과(N=9)

	건강 염려증	우울증	히스 테리	반사 회성	남성성 여성성	편집증	강박증	정신 분열증	경조증	내향성
사례1	38	44	42	54	43	56	44	57	69	66
사례2	49	53	49	73	68	43	40	48	50	47
사례4	54	44	58	64	53	101	72	80	87	45
사례5	50	47	54	56	37	45	45	44	47	45

	건강 염려증	우울증	히스 테리	반사 회성	남성성 여성성	편집증	강박증	정신 분열증	경조증	내향성
사례6	42	49	48	44	34	47	41	39	30	47
사례8	51	75	54	78	64	68	89	78	47	80
사례9	42	46	50	59	67	65	47	50	38	57
사례10	48	50	45	64	53	78	78	77	69	65
사례11	48	47	51	70	41	47	44	52	47	61



〈그림 14〉 MMPI-2 임상척도 결과(N=9)

-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계선지능 청소년의 다수는 심리·정서·행동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줌. 심리·정서·행동 문제를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에는 자립을 위한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아름다운재단·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진행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경계선지능 청소년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계선지능 청소년의 수는 총 12명이지만, 본 연구의 평가가 수행중인 2022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하여 총 5명의 청소년이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음.
- 총 5명의 경계선지능 청소년 참여자 중 1명은 주거지원 프로그램 참여기간이 길지 않은 관계로 변화를 살펴보기에는 기간이 짧은 관계로 사례분석에서 제외하였음. 최종적으로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지 1년 이상이 된 사례를 4명을 바탕으로 심리·정서·행동적인 변화와 자립준비도의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였음.

- 최종적으로 포함된 참여자의 간략한 정보는 다음의 <표 17>에 제시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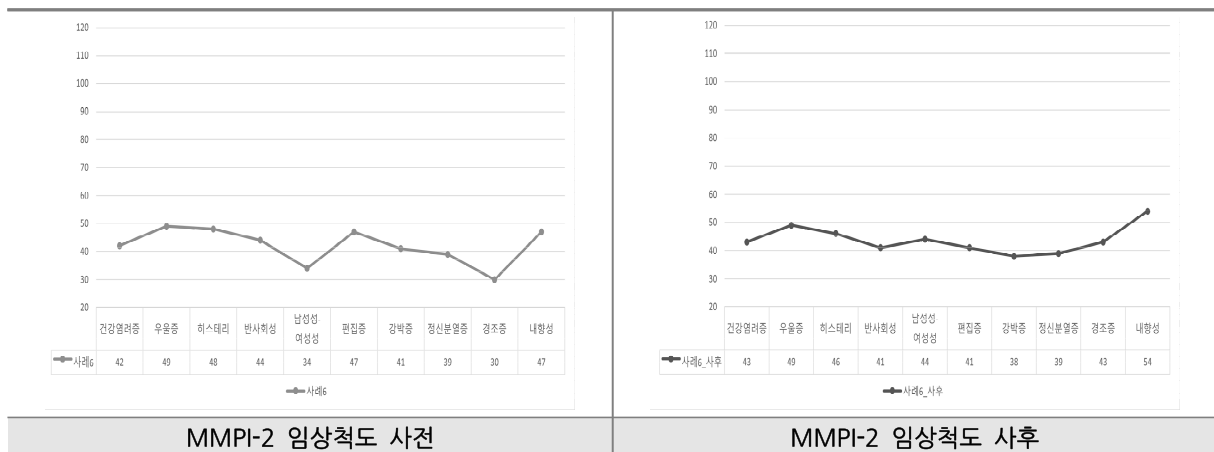
<표 17> 주거지원사업 성과분석 대상자

참여자	현재 만 연령	성별	서비스 참여 기간	지능지수(사전)	취업상태
사례 1	24세	남	1년 1개월	74	구직 중
사례 5	23세	여	2년 10개월	80	공부 중
사례 6	20세	여	2년 10개월	74	정규직 전환
사례 8	22세	남	3년 10개월	77	인턴십 참여중

1. 심리·정서·행동의 변화

- <그림 15>는 참가자 사례 6의 MMPI-2 사전·사후검사 결과를 보여줌.

- MMPI-2의 임상척도의 변화에 있어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사전검사에서도 임상척도에 있어서 큰 상승(T점수 65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사에서도 임상척도에 있어서 큰 상승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사후검사에서는 참가자 사례 6의 경우 현재 심리적 불편감은 없는 상태로 일상생활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상태로 확인되었음.
- 사후검사의 MMPI-2 내용척도에서 사회적 불편감 척도(SOD=68T)으로 나타나, 사회적으로 내향적이고, 사회생활에 서툴고 거북한 특성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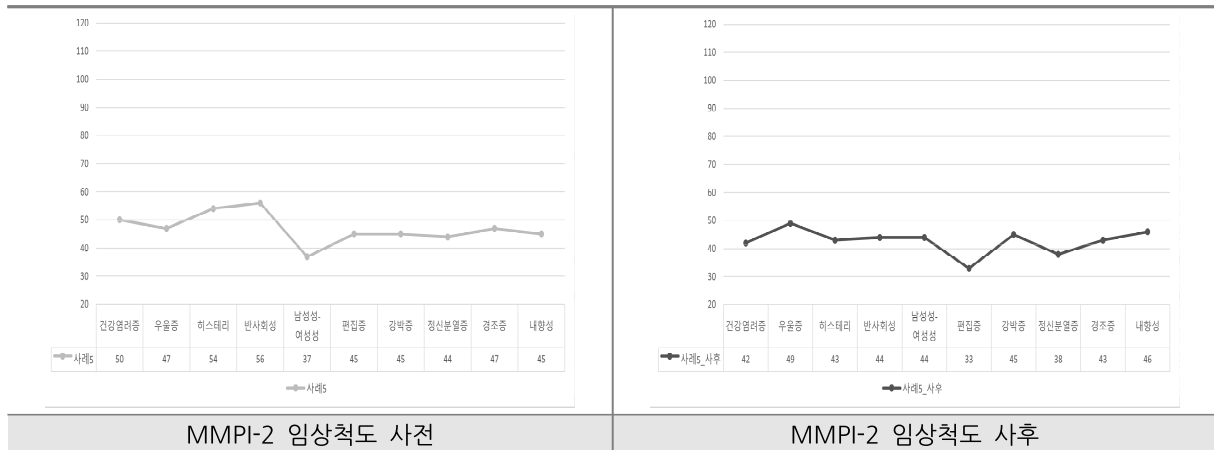


<그림 15> 참가자 사례 6의 MMPI-2 검사결과 변화

- <그림 16>은 참가자 사례 5의 MMPI-2 사전·사후검사 결과를 보여줌.

- MMPI-2의 임상척도의 변화에 있어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사전검사에서도 임상척도에 있어서 큰 상승(T점수 65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사에서도 임상척도에 있어서 큰 상승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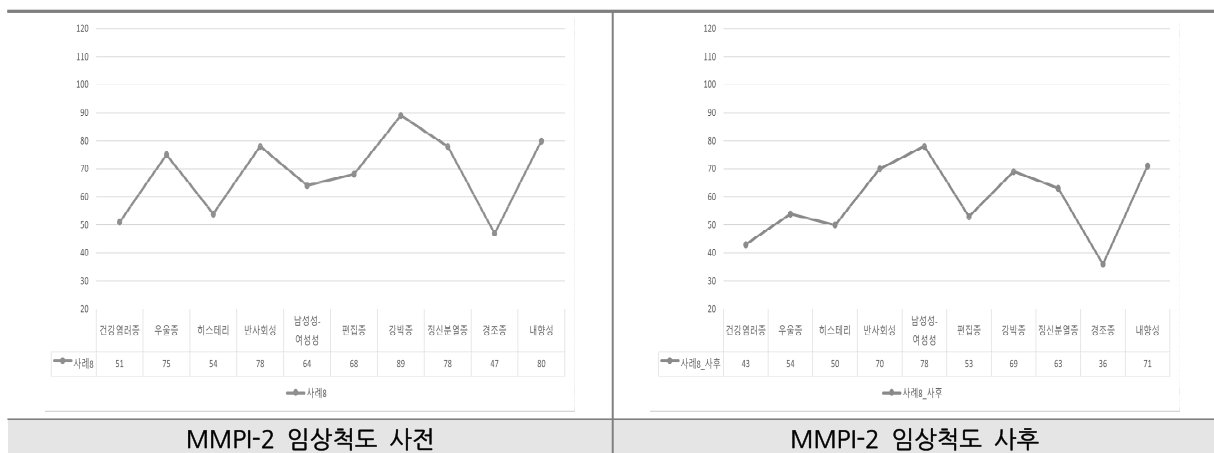
- 사후검사 결과의 MMPI-2의 보충척도에서 사회적 책임감(Re=71T)와 적대감과잉통제(O-H=72T)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남. 대인관계에 있어서 민감한 편으로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을 중시하여 자기주장이 어렵고 수동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고되었음.
- 사전검사 결과에서 참가자 사례 5의 경우, 정서적인 생존을 위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하려는 상태로 볼 수 있음. 특히, 자신을 좋은 모습으로 보이려는 시도가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에서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16〉 참가자 사례 5의 MMPI-2 검사결과 변화

■ 〈그림 17〉은 참가자 사례 8의 MMPI-2 사전·사후검사 결과를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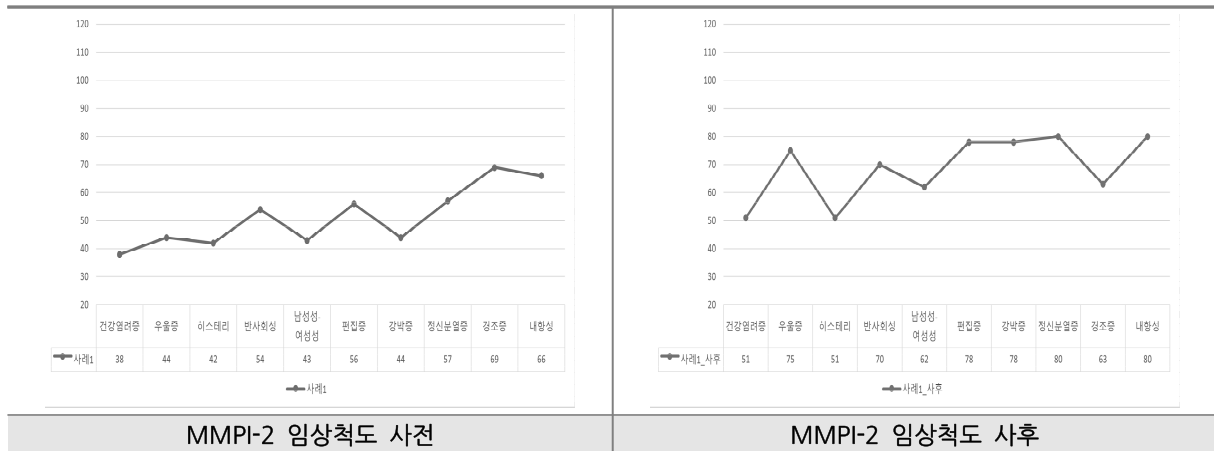
- MMPI-2의 임상척도의 변화에 있어서 일부 변화는 있는 것으로 나타남. 사전검사에서 큰 상승(T점수 65점 이상)을 보이는 6개의 임상척도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남. 사후검사 결과에서도 4개의 임상척도가 큰 상승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전검사와 비교하여 우울증 지표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MMPI-2의 보충척도에 따르면 여전히 불안이 높으며, 낮은 자존감, 사회적 불편감, 가정문제와 직업상의 어려움을 가진 것으로 판단됨. 또한, 부정적인 치료 지표 척도(TRT=66T)로 나타났음.



〈그림 17〉 참가자 사례 8의 MMPI-2 검사결과 변화

■ <그림 18>은 참가자 사례 1의 MMPI-2 사전·사후검사 결과를 보여줌.

- MMPI-2의 임상척도의 변화에 전반적으로 큰 상승(추가)을 보이는 임상척도의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음. 사전검사에서 큰 상승(T점수 65점 이상)을 보이는 2개의 임상척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후검사 결과에서도 6개의 임상척도가 큰 상승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전검사 결과에서 타인을 긍정적으로 경험하거나 신뢰감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사후검사 결과에서는 전반적으로 심한 우울감, 불안감, 분노감, 무력감 등을 느끼며 정서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임을 나타냄. 또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냉담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8> 참가자 사례 1의 MMPI-2 검사결과 변화

■ 현재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MMPI-2)를 활용하여 사전·사후검사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후에 있어서 MMPI-2의 지표에 큰 차이가 없는 대상자가 2명(50%)으로 나타났음. 이들의 경우 MMPI-2의 사전검사 결과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심리·정서·행동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지원 프로그램 참여 후에도 안정적인 심리·정서·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심리·정서·행동지표의 안정은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음. 특히, 참가자 사례 6은 심리·정서·행동지표에 있어서 안정성을 보이며 인턴십을 하고 있던 사업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 사례 5의 경우에는 자신의 불안정한 심리·정서·행동지표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를 숨기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검사결과에 나타남. 또한, 자신의 의견보다는 타인에 맞추어서 이야기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진로와 관련된 면담에서 상담자 혹은 실무자가 바라는 방향의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심리상담을 진행할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현재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를 하고 있음.

- 참가자 사례 8번 청소년의 경우, 사전검사 결과 불안정한 심리·정서·행동지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프로그램 참여 후 일부 지표가 좋아진 것으로 나타남. 예를 들면, 이전과 비교하여 우울과 같은 정서적 어려움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다만, 높은 불안감으로 여전히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낮은 자존감과 사회적 불편감을 보일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인턴십과 같은 취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심리적인 개입이 필요할 수 있음.
- 참가자 사례 1번 청소년의 경우, 사후검사 결과 불안정한 심리·정서·행동지표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됨. 특히, 사후검사 결과 심각한 우울증상과 함께 희망없음의 무기력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참가자 사례 1의 경우 계속해서 구직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취업에 대한 시도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특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낄 경우,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충동적으로 드러낼 수 있음. 참가자 사례 1번의 경우, 취업지원과 같은 지원보다 심리·정서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MMPI-2의 사전·사후 결과를 살펴보면, 심리·정서·행동지표에서 안정적인 경우에 자립에 있어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음. 따라서 자립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경계선지능 청소년에 대한 심리검사가 이루어진 후 이에 기반하여 맞춤형 심리개입을 제공할 필요성을 보여줌.

2. 자립준비도의 변화

- <표 18>은 참가자 4명의 자립준비도의 사전·사후검사 결과를 보여줌.
- 자립준비도에 있어서 평균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표본 수가 매우 적은 관계로 비모수통계기법을 활용하여 변화를 확인한 결과 유의미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자립준비도 지표는 사전·사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자립지표는 사전에 보고된 수치와 비교하여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예를 들면, 돈관리 영역은 사전(4.5)보다 사후(4.0)에 나빠진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최고점인 5점 척도인 지표를 생각할 때, 처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계선지능 청소년들의 자립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자신만의 독립적인 주거에 대한 욕구로 인하여 주관적인 자립준비도가 높은 것으로 인식하며 긍정적인 자립생활을 시작하지만, 현실에서 다양한 문제에 봉착하면서 주관적인 측면에서 자립준비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예를 들면, 실제로 생활비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관리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자신감이 하락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음.

〈표 18〉 주거지원 프로그램 참여자의 자립준비도 변화(N=4)

		사전		사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자립의지		3.8	1.2	3.9	0.9
진로직업역량	직업가치관	3.4	1.8	3.8	1.9
	직업조사	2.8	0.9	2.6	1.3
	직업선택	3.1	1.7	3.3	1.5
	직업적응	3.5	1.8	3.3	1.1
	소계	3.2	1.0	3.2	1.3
경제적 관리	소비관리	3.6	1.9	3.6	1.0
	돈관리	4.5	0.6	4.0	1.6
	신용관리	4.2	1.3	4.6	0.5
	소계	4.1	1.2	4.1	0.8
주거생활관리	주거관리	2.7	1.2	3.3	1.0
	음식준비	4.4	0.5	4.9	0.2
	주방관리	4.8	0.4	4.9	0.2
	안전관리	4.9	0.2	4.6	0.9
	소계	4.2	0.5	4.4	0.3
사회적기술		3.9	0.9	4.2	0.4
자기보호	성보호	4.7	0.5	4.8	0.4
	건강관리	3.9	1.2	4.3	1.3
	소계	4.3	0.6	4.6	0.6
학업관리		3.0	1.6	3.0	1.3
자립요인 전체		3.8	1.0	3.9	0.7

- 경계선지능 청소년이 주관적으로 응답한 자립준비도 결과도 이전의 MMPI-2의 결과와 일치하는 상황을 볼 수 있었음.
- 자신의 의견보다는 타인에 맞추어서 이야기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참여자 사례 5의 경우, 자립준비도에 있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임. 하지만 연구진의 가정방문 및 면접조사의 내용을 고려할 때, 실제로는 자립준비도가 주관적 인식보다는 낮을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서 주관적 자립준비도의 해석이 제한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보여줌.
- MMPI-2의 결과 심리·정서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보인 참여자 사례 1은 전반적으로 자신의 자립능력에 대해서 낮게 평가를 하였음. 특히 사후 진로·직업역량에서 직업가치관(M=1.0), 직업조사(M=1.0), 직업선택(M=1.0), 직업적응(M=1.3)으로 사전점수와 비교하여 상당히 낮아짐. 그 외 다른 자립준비도 수치도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심리분석 결과에서 이야기되고 있듯이 우울증상과 무력감 등의 영향으로 외부와의 단절된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음.
- MMPI-2의 결과 심리·정서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참여자 사례 6의 경우에는 자립의지는 평균 4.8로 이전의 4.5에서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다만,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자립 초기단계에서의 강한 자신감으로 높은 주관적 인식을 가진 것이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낮아진 것으로 인식할 수 있음. 예를 들면, 경제적인 관리에 대한 자립준비도 인식이 전반적으로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음.

3. 주거지원사업 참여자의 주거 관리

- 경계선지능 청소년은 아름다운재단과 경기북부자립지원관의 주거지원 사업을 통해서 독립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고, 관리하며 자립을 준비함. 자립을 위해서 필요한 주요 역량 중 하나는 독립적인 주거를 유지하는 것이며, 청소와 식사 준비 등이 포함됨.
- 독립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자기관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인 청결, 세탁 및 옷 관리, 세금 납부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사례관리자가 가정방문을 통해서 주거 관리 및 일상생활 전반에 필요한 밀착 교육을 진행함. 이 과정은 반복적인 교육과 코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 모든 주거지원사업 참여자가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주거 관리를 완벽하게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사례관리를 통하여 일부 참여자의 경우에는 독립적인 주거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다음은 참여자의 주거 관리의 모습이며, 가정방문 및 사진촬영은 동의를 구하고 수행하였음. 아래의 사진과 같이 일부 참여자들은 주방 청결과 식사 준비를 위한 식자재 관리, 세탁과 수납 정리를 훌륭히 수행해내고 있었음.



〈사례〉 주거지 관리 모습

2절 경계선 지능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경험 질적 분석결과

-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자립지원 경험을 경계선지능 청소년 참여자와 실무자의 경험을 통해서 살펴봄. 서비스 공급자와 수혜자가 서비스 과정에서 경험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서비스 공급과 수요의 정합성을 타진할 수 있음.
- 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은 아름다운재단·경기북부자립지원관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와 참여자는 아니지만, 다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자립지원을 받는 경계선지능 청소년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여 수행함.
- 실무자의 관점을 통해서 경계선지능 청소년의 자립지원의 내용, 한계점과 발전방안 등을 확인함.

1. 청소년복지시설 자립지원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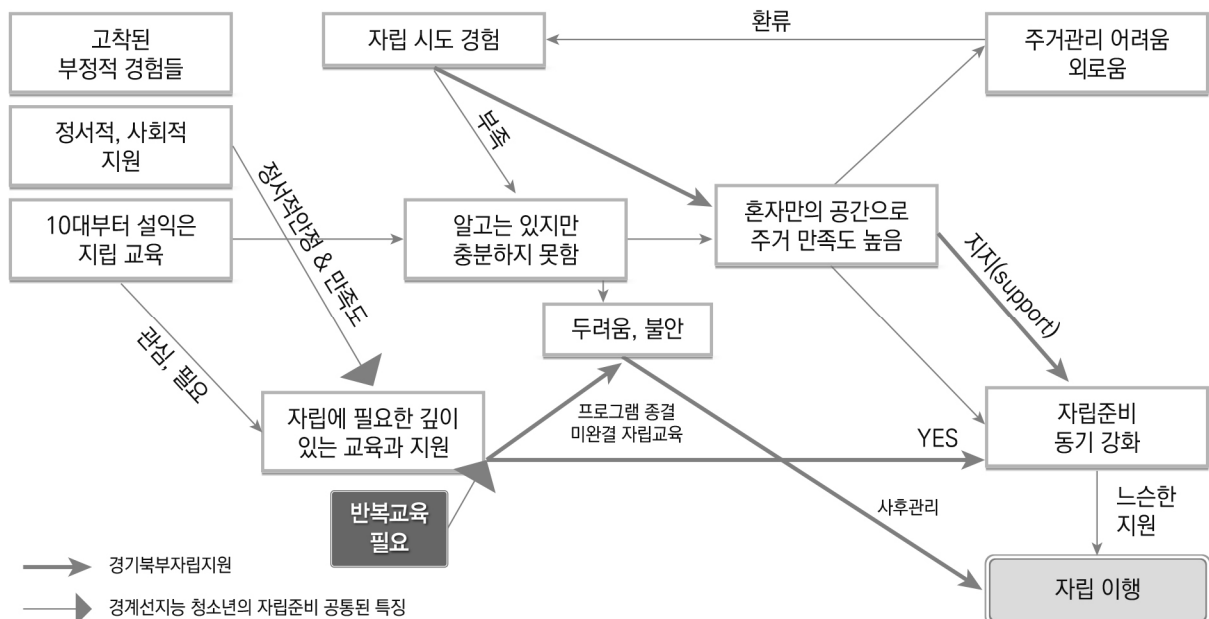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자립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은 다음과 같이 총 14명을 통해서 확인함.
- 아름다운재단·경기북부자립지원관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8명의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살펴봄. 이들의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비교하기 위해 청소년 자립지원관 및 쉼터에서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 6명도 심층 면접을 수행함.
- 아름다운재단·경기북부자립지원관 주거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대상자 모집은 첫째, 서울, 경기, 인천지역 청소년복지시설에 경계선지능 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공문을 발송한 후 둘째, 청소년 경계선 지능 혹은 의심 청소년을 대상으로 면접을 수행함.
- 각각의 면접은 청소년 1명과 연구진 1~2명이 참여하여 수행했으며, 1~2시간 동안 대면하여 이루어짐. 아름다운재단·경기북부자립지원관 주거지원 사업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통상적인 청소년자립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서 주거지원 사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음.
- <표 19>는 면담에 참여한 경계선지능 청소년에 대한 정보임. 본 면접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연령은 만17세~만24세까지 분포되며 서비스 참여 기간은 최소 3개월부터 최대 3년 10개월 까지임.

<표 19> 경계선 지능 청소년 면담 참여자 정보

참여자	아름다운재단·경기북부자립지원관 주거지원사업 참여	만 연령	성별	서비스 참여 기간
A	참여	24세	남	1년 1개월
B	참여	21세	여	8개월
C	참여	21세	여	5개월
D	참여	21세	여	11개월
E	참여	23세	여	2년 10개월
F	참여	20세	여	2년 10개월

참여자	아름다운재단·경기북부자립지원관 주거지원사업 참여	만 연령	성별	서비스 참여 기간
G	참여	22세	남	6개월
H	참여	22세	남	3년 10개월
I	비참여	24세	남	3개월
J	비참여	22세	남	9개월
K	비참여	19세	남	7개월
L	비참여	23세	여	4개월
M	비참여	24세	여	1년 1개월
N	비참여	17세	남	2년

■ 면담을 수행한 결과, 경계선 청소년들의 자립지원 경험은 다음의 <그림 19>와 같이 정리될 수 있음.



〈그림 19〉 경계선지능 청소년의 자립지원 경험

■ 경계선 청소년들의 자립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관한 연구 결과는 다음의 <표 20>과 같이 대영역 4개와 소영역 11개로 정리할 수 있음.

〈표 20〉 경계선지능 청소년 자립지원프로그램 참여경험

대영역	소영역
자립지원 프로그램 경험과 만족도	• 청소년 쉼터 등 이전 기관에서 자립준비와 차이점 • 프로그램 참여 후 달라진 점 •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과 아쉬운 점
주거지원 프로그램 비참여자의 자립지원 프로그램 경험	• 흥미 없는 자립교육 • 경제적, 심리적 지원은 자립준비에 도움이 됨 • 개인마다 다른 반복교육 통해 자립 압박감 해소 필요

대영역	소영역
청소년이 평가한 주거지원 사업 참여의 성과	• 주거와 경제적 지원 만족도 • 구직단계 진입하기 위해 진로탐색으로서 직업훈련
자립을 위해 준비해야 할 부분	• 경제적 자립기반 만들기 • 일상생활관리와 심리정서적 안정감 • 자기돌봄

1) 프로그램의 경험과 만족도

가. 청소년쉼터 등 이전 기관에서의 자립 준비와 차이점

- 청소년쉼터에서 퇴소한 경계선지능 청소년들은 경기북부자립지원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자립준비의 차이점이 있다고 함. 기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단기 및 중장기 쉼터에서 생활한 경험을 가지고 있음. 특히 이들은 가정복귀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립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본 프로그램에 지원함.

(참여자 E) 지원관 오기 전에 이제 여기 3층 4층에 있는 ○○○시 단기 청소년 쉼터에서 좀 오래 있었거든요. (중략) (거기서) 자격증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알바도 조금 하기도 했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이제 뭔가를 자립 욕구가 점점 더 이제 강해지고 뭔가 단단해지기 시작한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 경기북부자립지원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들이 이전에 경험한 청소년복지 체계에서의 자립지원과 다른 점은 개인 공간이라는 점을 손꼽았음.

(참여자 C) 부천에 쉼터에 있었다가 수원에 갔다가 금천에 갔다가 여기 온 거예요. 거기 쉼터는 여럿이서 같이 지내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여기 오니까 너무 편했어요. 솔직히 제가 막 사람 많은 데를 좀 그렇게 좀 안 좋아해서 그래서 좀 약간 잘 때도 독실 쓰는 걸 좀 더 좋아했어가지고.

(참여자 A) 굳이 꼽자면 저만의 공간이 없다는 게 힘들 것 같아요. 저는 항상 혼자 살았기 때문에 혼자 살진 않았죠. 쉼터에서도 오래 살았는데 그게 군대죠... (쉼터 생활은) 체험판이죠. 약간 좀 좋은 기억은 없었어요. 거의 그 아니 6년 5년 살면서 단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었어요. 그냥 다른 거 다 제쳐서 단체 생활을 한다는 거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런 형편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게 더 화가 났고 그냥 그래서 편하진 않았죠. (그런데 여기 와서는) 일단 저의 삶의 방향성 이런 게 아예 달라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큰 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소한 것들은 안 바뀌고 그냥 저희 그냥 인생 방향성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리고...

- 경계선지능 청소년의 경험에 따르면,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제공되는 자립에 필요한 지원, 교육과 경험은 이전에 생활했던 청소년쉼터 등과는 다르다고 함. 즉 청소년쉼터에서 교육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과 비교하여, 청소년들이 실제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교육과 경험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었음.

(참여자 E)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어느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어느 쪽이 더 좋다가 보다는 그냥 둘 다 좀 일단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습득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참여자 H)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여기는 실제로 자립을 경험시켜주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가 더 잘 알지 않나 싶네요. (쉽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거 가볍게 알려 주고. (여기는) 주거지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나. 프로그램 참여 후 달라진 점

- 청소년쉼터 등에서 자립을 준비했던 경험이 있지만, 경기북부자립지원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참여자들은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하기도 함. 달라진 점은 심리정서적인 측면, 일상생활관리 등 다양하게 표현되었음.

(참여자 E)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는 그냥 아무런 정보가 없고 그냥 무슨 아무것도 없는 약간 지형이나 이런 거에 비유를 해보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모래사막에 저 혼자 그냥 중심에 동그라미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제 뭔가 나무도 심어서 이제 그 나무들의 열매들이 자라서 그 열매들은 이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니면 썸들의 조언을 통해서 얻은 그런 정보들이 지금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중략) 또 이제 자립지원관에서 하는 교육들도 이제 저한테 다 큰 도움이 되니까 이제 만약에 혼자 준비하라고 했었으면 되게 막막했을 텐데 그래도 제가 자립지원관과 연계가 돼서 이렇게 계속 쪽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되게 뭔가 빠르게 자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기대도 들고 긍정적인 시너지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참여자 H) (프로그램 참여 후 달라진 점은) 일단 생활 습관이에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잘 될 거 같아요. 그냥 될 대로 되겠지 했는데, 또 경험을 하고 여기에 교육을 받으니까 이랬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대비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중략) 옛날에 그냥 모든 게 허무하고 우울했는데 그냥 마음이 안정되고 생각 자체를 바꾸니까 모든 게 긍정적으로 보이고 사소한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 A) 여기 와서 얘기해보면서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여기 있으면서) 제가 자기 관리를 안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전에 좀 개판이었는데, 지금 좀 괜찮아지고. 그러니까 단정하지 못했던 남들 시선을 신경 안 쓰고 그냥 제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여기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25살까지 저는 외모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거든요. 누가 어떻게 보든 신경 안 쓰기 때문에 근데 여기 들어오고 나서 그거에 대한 중요성 필요성을 좀 느낀 것 같아요. 많이 느꼈어요.

(참여자 F) 네, 학생 때는 엄청 막 위축되기도 했었고 자립지원관 오기 전에는 생활하는 것도 엄청 힘들고 왜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 거지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만 엄청 했었는데 (중략) 성격 자체가 전보다는 좀 엄청 많이 밝아지고 말도 더 많아지고 전체적으로 되게 약간 빛이 들어갔다고 해야 되나 다 환해진 것 같아요. 전에는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말도 잘하지 못하고 인사도 잘 못했거든요. 제 소개도 잘 못했었고 그냥 하루 종일 긴장만 하다 보니까 막 속도 쓰리고 집 가면 또 가자마자 바로 그냥 쉬어줘야 되고 이런 게 다반사였는데... 지금은 되

게 말도 많아지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인사하라고 해도 자기소개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밝아지고 지금 원래도 말이 많았긴 했는데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중략)... 원래 컴퓨터에서도 어떤 프로그램을 했을 때 선생님들께서 물어보시고 하면 대답을 먼저 하는 일이 잘 없었거든요. 해도 그냥 엄청 친한 친구들끼리 있어야지 대답을 하고 그랬는데 저번에 그때 카페에 가서 얘기 나누고 했을 때 인터뷰하고 그랬을 때도 거의 제가 다 모든 질문에 답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신기했었어요.

(참여자 D) 엄마 아빠랑 많이 나아졌어요. 집에 있으면 엄마가 빨리 나가 죽어라 나가 죽어라 이렇게 잔소리를 하시는데, 이제는 돈 보내줬더니... 야 니 알아서 살자 딱 이렇게 돼버리니까 집에 찾아가지고 어머니께 직접 요리도 제가 직접 해드리고 저번 달에는 제가 부추 잔뜩 사가지고 부추전을 해 드렸거든요. 어머니께.

다.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과 아쉬운 점

- 참여자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은 캠핑,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요리교육과 경제교육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주목되는 점은 캠핑 프로그램이 다른 참여자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일상에서 벗어난 특별한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함. 참여자들은 요리, 경제 교육, 청소하는 방법 등이 도움이 되었다고 함.

(참여자 H) 프로그램 여행 가고 여행이라고 하기엔 애매한데 아무튼 캠핑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럴 때가 좀 만족스러웠어요. 같이 막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듣고 그런 부분이 나름 소소한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얘기하는 것보다 듣기 입장인데 듣는 것도 제가 겪어보지 않은 일들을 들을 수 있어서 흥미롭더라고요 일 교육 같은 거나 일 예절 프로그램이라던가 그런 거 되게 도움 됐던 것 같아요.

(참여자 F) 많아서 잘은 기억 안 나는데 제일 도움 됐던 거는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여러 모임 같은 거 하면서 얘기 나누는 것 중에서도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거 이런 것도 공유하고 (중략) 자취 꿀팁 이런 것도 서로서로 알려주고 예를 들어서 청소할 때는 어떻게 해야지 좀 더 편하다 이런 것도 있고 (중략) 캠핑은 혼자 여행 갈 때랑 다 같이 여행 갈 때랑 좀 기분이 달라요. 다 같이 가면은 그래도 혼자 챙길 수 없는 것들을 다른 사람이 챙겨주고 도와주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좀 도움이 되고. 그냥 많이 얘기를 서로서로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중략) 여기서 했던 것 중에 제일 저한테 좀 와 닿았던 게 저는 요리 하러 갔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놀러 가는 것도 놀러 가는 건데 요리하러 갔던 건 처음이었기도 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기도 했고

(참여자 D) 그거 칼질하는 거 배워서 잘 사먹고 있고 요새 어제 같은 경우는 카레 같은 거 끓여서 먹고 된장찌개도 가끔 아버지 만나 끓여드리고요 (중략) 그래도 혼자서 뭘 해 먹을 수 있다는 게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제대로 하나 못 했는데 지금은 혼자 김치전을 혼자 해먹고 있고 감자전을 해먹고 있으니까 어제도 삼겹살 넣어서 김치전을 해먹었어요.

(참여자 E) 일단은 금융 교육이나 뭐 심리 치료 미술 치료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이제 저는 아무래도 이제 다 도움이 되긴 했었는데 그중에서도 약간 경제 관련해서 약간 좀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제일 인상이 깊었고 되게 기억이 오래 남는 것 같아요. (중략) 그리고 (자립지원관에) 전화를 하면 친절하게 잘 소통을 해주시니까 그것도 되게 감사한 것 같고...제가 너무 약간 저는 당황하면 되게 생각이 잘 안 들어서 그냥 주변 분들한테 어쨌든 연락부터 하거든요. 일단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그러다가 잘못 판단을 해서 일일이 좀 안 좋게 흘러갈 수도 있잖아요.

(참여자 G) 썸들 경제 교육 같은 거나 뭐 그런 거 해주셨는데 자립 관련해서 되게 잘 기억이 나긴 하죠.

- 반면,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자립준비의 경험과 수준에 따라서는 특별하지 않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참여자도 있었음.

(참여자 A) 쉼터에 오래 있었다보니까 항상 이런 프로그램들을 한 달에 한 번씩 꼭 했던 것 같은데, 사실 기억에 남는 거 없네요. 여기서 했던 것들도 쉼터에서 했던 것들이랑 비슷하고 다 결이 비슷해서 도움이 된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다 아는 거라서) 그렇죠. ...(중략)... 다른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미 너무 어렸을 때부터 다 혼자 경험을 해본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것들은 이제 한 번 한 번 받아서 끝날 게 아니라, 약간 좀 장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될 것들이...(중략)...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걸 하면 좋을 것 같다. 이게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게 저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그런 교육들을 받아서 해결될 게 아니기 때문에 저의 습관이고 성격이기 때문에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해서 딱히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교육들 같은. 뭘 봤더라도 저는 그렇게 느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참여자 H) (자립을 위해서 더 배워야 할 것은) 지금은 다 배웠긴 했는데 막 돈 관리라든지 면접이라든지, 특히 그 집세 같은 거 전세 사기도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좀 그냥 사기 예방을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 한편으로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충분히 자립 역량이 갖추어지기 전에 종료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표현한 참여자들도 있었음.

(참여자 G) 이게 제가 혼자서 잘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처럼 아닌 거 같기도 하고 너무 내가 1년 내년 전까지 이렇게 확 바뀌겠다는 약간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이면 이 프로그램이 끝나니까 좀 불안이 되기도 했을거예요. 이거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지 그때도 안 바뀌어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도 들고 그래서 너무 그런 기대감 때문에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참여자 E) 사실 이제 제가 쉼터에 있을 때도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중략) 이제 사후관리가 들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불안하기도 해서 이제 빨리 준비해야 되는 데 왜 제대로 안 될까 하면서 약간 강박감 초조함 이런 게 생기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것 같다고 제가 판단이 서서 그때 어쩔 수 없이 약물치료를 받았던 건데... 이제 약물치료를 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불안한 거는 사라지고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좀 초조한 거는 아예 없지는 않고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하고는 있어요.

2) 주거지원 프로그램 비참여자의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경험과 만족도

- 아름다운재단·경기북부자립지원관의 주거지원 프로그램과 일반 청소년자립지원관 및 청소년 쉼터의 자립지원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험을 비교한 결과 가장 큰 차이점은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임.
- 더불어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참가자들은 심리·정서적 어려움과 외로움을 많이 표현했음. 무엇보다 자립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못한 채 자립을 시도하면서 두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청소년 쉼터 등에서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자립준비 프로그램들이 10대와 20대에 맞게 디자인될 필요가 제기되며, 실제 자립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20대 생애주기에 맞는 눈높이에서 실행될 필요가 확인되기도 함.
- 무엇보다 10대부터 자립에 대한 압박감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에게 자립은 생애과정 도전이기도 하지만, 사기와 범죄에 노출되기도 하고 노출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음.

가. 흥미 없는 자립 교육

- 면접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이 청소년기부터 들었던 내용의 반복이거나 재미없이 진행된다고 평가하기도 함. 프로그램이 실제 참여자들의 학습 동기를 불러일으킬 만큼 흥미를 주지 못해서 프로그램 참여가 시간 낭비로 느껴지기도 함.

(참여자 M) 기관 적응훈련... 그냥 서로 좀 알아보는 그런 거만 했던 거 같아요. (중략) 프로그램하면 좀 시간 낭비하는 느낌. 좀 괜히 갔나 이런 느낌들이 있어서 그냥 프로그램 잘 참여 안 했어요. (중략) (그리고 쉼터에서도 조금 있었는데) 쉼터에서 들은 걸 똑같이 듣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강사선생님들이 재미가 없어요.

(참여자 L) 솔직히 자립지원관에서 제가 뭘 지원을 받았는지.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물품을 지원해주는구나 이려고 있고 근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자립지원관에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참여자 D) 이제 아무래도 쉼터 같은 경우는 성인들보다는 좀 애들 위주로 있다가 보니까 애들 초점에 좀 맞춰지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물론 지금도 다 이제 성인들도 이제 다 근무지에서 이제 다 받기는 하지만 이제 소방안전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성교육 아니면 이제 진로 교육 같은 거 이제 받기는 하는데 (중략) 잊을만하면은 그렇지 계속 교육 똑같은 교육 계속해서 이제 계속 이제 습득을 하게끔 (중략) 그런 취지로 좋지만, 저희는 이제 이미 알고 다 알고 있는 건데 계속 이제 똑같은 걸 받으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지루할 수 있고 그런 게...

나. 경제적 지원과 심리적 지원은 자립준비에 도움이 됨

- 한편, 자립지원관에서 지원되는 경제적, 심리적 지원은 자립 준비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함. 자립지원관 프로그램이 도움이 된다고 표현하는 청소년들은 자기의 필요나 욕구에 맞기 때문에 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함.

(참여자 K) (자립지원관에서) 월세 지원받고 있고 근데 그게 진짜 제일 많이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자취하면은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그거 면해지는 게 되게 엄청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중략) 패러글라이딩만 한 게 아니고 사격도 해봤고 활쏘기... 그런 것도 해보고 되게 여러 가지 많이 했어서 굉장히 기억이 저는 진짜 재미있었던 거 같아요. 탄데 가서 막 이런 경험을 해볼 수 없으니까 처음해보는 경험이라서... 제가 버킷리스트에 패러글라이딩 그런 게 있었는데 딱.

(참여자 N) 도움이 되는 거는 요리 정도요. (중략) 또 거기에다가 이제 계약하는 것도 중요하고 집을 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 쪽으로 관련해서 많이 배웠어요. 집 중에서는 이런 집이 있고 이런 안 좋은 집도 있다는 거랑 계약서에서 이런 거는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 쪽으로도 있었고 계약으로 집 볼 때 이런 걸 유의해서 물어봐야 한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 자립 준비를 하는 청소년들은 사회적 관계가 활발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관계를 맺는 것에 두려움이 있기도 함. 하지만, 자립지원관 담당 실무자 등 프로그램 개입 과정에서 만난 전문가들에게 심리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으며 도움을 받고 있었음.

(참여자 K) 솔직히 친한 친구는 없는 거 같아요. 솔직히 안 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오래되진 않았는데 그래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선생님(자립지원관 담당자)이나 지금 상담센터 아니면 가끔 여자친구...(중략) 가정사여서 그냥 불화가 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쫓겨나듯 나온 거거든요. 그냥 제가 누구한테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도움이 많이 됐던 거 같아요. (중략) 일단 썸계서 하고 싶은 거라든지 있으면 배우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 여기서 자립할 수 있는 거면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시고 그냥 계속 제가 뭘 하고 싶은지 뭘 배우고 싶은지 계속 저한테 말씀해주시는 것 같아요.

(참여자 I) (자립지원관 선생님들) 도움이 많이 돼요. 진짜로 많은 것 좀 챙겨주시고 (중략) 서로 좀 많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최대한 좀 많이 챙겨주시는 편이세요.

(참여자 J) (선생님) 이것저것 제가 힘든 거나 그런 거 많이 도와주시고 정신적으로 힘들 때도 조언 많이 해주세요.

다. 개인마다 다른 반복 교육을 통해 자립 압박감 해소 필요

- 자립에서 필요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속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반복 노출할 필요가 있기도 함. 또, 이와 같은 교육훈련에는 대중교통 이용 등 개인의 역량에 따른 맞춤형 개입이 필요함.

(참여자 N) 통장 관리 기억이 잘 안나요. 주기적으로 배워도 일단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제 막 어쨌든 한두 번씩 이제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그냥 그것만 배우는 정도라서 중요한 거만 기억나고 나머지는 거의 다 그냥 흘러드는 정도로(삭제)라서.

(참여자 N) 다른 사람들이 다 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어디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고 판을 봐도 뭐가 어딘지를 모르다 보니까 멀리 있을 때 지하철 안 빨리 갈 수 있는 거를 모르다 보니까 혼자 가면은 그래서 그냥 버스로 그냥 다시 몇 번씩 갈아타는 형식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불편하기는 해요. (중략) 돌아가는 방법도 몰라요. 그냥 아무 기차에 다 탈 것 같아서... (중략)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뭔가 기대되는 것도 있지만 뭐라 해야 되지 좀 두려움 정도가 있는 거 같아요.

- 무엇보다 오랜 시간 자립을 준비하며 다양한 경험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좀 더 개인의 흥미, 재능과 역량에 맞는 근로 및 직업 체험이 제공되어서 자립준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음.

(참여자 D) 이전에는 주로 아무래도 서비스직을 좀 많이 했었고요. 주로 청소년 그러니까 성인 전에는 아무래도 이제 재할 작업장이 그런 걸 좀 했었다가 성인되고 나서 이제 저희가 원래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여서 그래서 저도 조건부 수급자이다보니 이제 구해서 지역자활하다가요. 아무래도 거기가 (중략) 강도가 많이 낮기 때문에,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무리가 없는데 이제 저 또래 나이가 이제 대부분 이제 다 어른분들이니까 아무래도 좀 대인관계 상에서 좀 눈치가 많이 보이죠. (중략) 그리고 아무래도 거기 오래 일하다 보면 또 본인 스스로 많이 나태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3) 청소년이 평가한 주거지원 사업 참여의 성과

- 자립준비의 성과는 주거와 경제적 지원, 구직활동과 관련 교육, 심리·정서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음.

가. 주거와 경제적 지원

(참여자 A) (주거지원을 받게 되면서는) 그냥 큰 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소한 것들은 안 바뀌고 그냥 저희 그냥 인생 방향성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리고 (중략) 그러니까 저의 원래는 쉽게 설명하면 원래는 계획이 없었던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고, 그냥 놀고 먹었던... 지금은 이제 여기 와서는 선생님들 조언도 듣고 하면서 이제 조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뭐라 하지 계획 그런 게 좀 확립이 되었다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고려가 아니라 그냥 확실히 정해진 것 같아요.

나. 구직단계 진입하기 위해 진로 탐색으로서 직업 훈련

- 자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는 것이지만, 대부분 참여자는 진로를 찾지 못한 채 인턴, 아르바이트와 같은 활동을 통해 사회생활을 체험하는 단계에 있음. 그마저도 자립지원관의 연계를 통해서 1년 이상 고용상태가 유지되는 사례가 있기도 했지만,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단기간 경험으로 그친 예도 있었음.

- 그 과정에서 자기에 맞는 일을 찾기 위해 고민하기도 하고, 또 일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에서 자신감과 만족감을 얻기도 함. 하지만, 이 같은 단편적인 경험들이 충분히 안정적 일자리를 얻기 위해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진로 성숙도를 쌓을 시간, 훈련이 필요함.

(참여자 D) ‘정기적으로 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택배 상하차 하루만 하면 이게 몸이 아예 진이 빠지니까 못했어요.

(참여자 A) 3주 정도 **에서 일했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그만뒀던 거 같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그런 게 아니실 수도 있는데 제가 느꼈을 때 약간 좀 부담이라든가 불합리함 그런 게 좀 있다고 생각... 좀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물론 그냥 제가 느낀 것 같은데 그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중략) 정말로 제가 여기서 연계 지원을 받아서 그쪽 근데 저를 약간 좀 모자란 애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취급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제가 3개월 뒤에 어차피 그만두기 때문에 잘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는 좀 많이 좀 애 같을 수도 있는데, 좀 섭섭하고 서운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참여자 E) (중략) 제가 근데 사실 이제 인턴으로 한다고 해도 이게 아직 제가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이래서 커리어도 많이 없고, 이래서 제가 국가에서 취업 관련 제도들 중에서 내일 배움 카드가 있는데, 거기서 일단은 제가 과정 신청은 안 했는데, 이제 만약에 하게 되면은 제가 취업이 잘 되는 IT 계열 쪽으로 이제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중략)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취업이랑 사실 제가 이제 고졸이잖아요. 그래서 대학 진학을 이제 뒤늦게라도 준비를 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뭔가 가고 싶은 학과는... 아무래도 저는 자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돈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저는 딱히 좋아하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긴 하고, 근데 막상 제가 배우면 또 그거를 재밌어 할 수도 있잖아요. 흥미를 가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그리고 제가 진로 결정을 못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주변분들한테 이제 많이 여쭙보기도 했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립의 일부분이니까 그래서 도움을 요청을 했었는데, 이제 그러면 일단은 하고 싶은 게 뭔지 몰라도 일단 여러 가지를 좀 많이 해보는 게 좋다고 하셔서 그냥 일단은 해보고 (중략) 이제 과거에는 그럴 기회도 없었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서, 이번에는 좀 이제 저도 너무 이제 절실하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언제까지 알바나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인턴이나 이렇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좀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을 해봤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일단 좀 거의 이제 확신이 든 게, 일단 취업이 잘 되는 거 일단은 제가 이제 과거에서부터 목표가 사실 이제 자립이었거든요.

(참여자 G) 저도 많이 하죠. 전단지랑 물류센터. 근데 물류센터에서 일했을 때 좋은 분들을 좀 많이 만나서 약간 배우고 거기서 좀 사회생활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알바였지만 집에서 그래도 이제 내가 알바가 좀 그 일을 하기 전에 알바가 될까 이렇게 생각도 됐었는데 어쨌든 거기서 이렇게 또 일을 또 할 수 있게 해줘서 지금 제 통장에 있는 돈이 그래서 모이게 된 거니까 좀 그런 면에서도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참여자 H) 더 연장하고 싶었던 계약 기간이 그거밖에 안 된대요 (곧 계약 종료를 앞두고) 딱히 이렇다 할 것은 없는데 일단 시도는 해보려고요. 이것저것 안 해본 것들 위주로 해본 것들은 뭐 익숙하기도 하고 난 좀 여러 가지 도전을 해야 그래도 다방면에서 사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

고, 옛날에 딱 애견 카페를 예를 들면 하고 싶었는데 안 해보니까 좀 주저했던 것도 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는 처음에 좀 낯설고 그랬지만 하면 할수록 익숙해지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얻은 게 많다고... (중략) 제빵 일을 그것도 인턴으로 한 달 그거 한 달인데 10시부터 5시까지 7시간 하고 있습니다. 목금에는 지금 조금 반복되다 보니까 질릴 수도 있는데, 막상 하면 그래서 여유롭게 덜 신경 쓰고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좋더라고요 지긋지긋하면서 좋은 거죠. (계속 배우고 싶은 분야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찾으려는 좋은 거죠. 왜냐면 안정적인고 그만큼 적응이 된 거니까 언젠간 찾게 되면 그것도 좋을 것 같네요.

(참여자 F) (지금하고 있는 일이) 꽤 재밌어요. 할 일이 어떨 때는 좀 많을 때도 있어서 하루하루마다 차이가 좀 나가서 힘들 때도 있는데 또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다 좋고 착하시고 알려주실 때도 되게 친절하게 잘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나름 약간 재미나게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4) 자립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 역량

가. 경제적 자립 기반 만들기

- 청소년들은 스스로 자립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경제적인 측면을 가장 많이 이야기했음.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위한 진로 고민,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자산을 만들기엔 관심이 많았음.
- 하지만, 이와 같은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획득되는 발달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어려운 도전적 과제가 되기도 함.

(참여자 D) (경제적인 부분에서 돈 관리하는) 배우는 게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흥청망청 쓰게 돼서 저축을 한 달에 10만원씩 그래도 꼭 저축을 하거든요. 주택 청약도 나는데 그거 빼고는 딱히 저축을 못 해가지고....

(참여자 G) 정말 좀 많이 돈 계산이나 관리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 그거랑 아직 좀 배울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집 관리하는 거 청소나 조금 게으름을 좀 많이 어떻게든 좀 줄여야 되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F) (자립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일자리. 일자리랑 돈 그리고 건강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 지금 사는 거 말고도 또 나중에 이사를 가야 될 때 이사 갈 비용도 따로 모아둬야 되고 생활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돈이 좀 쓸 데가 많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참여자 A) 저 같은 경우에는 경제력일 것 같아요. 일 좀 꾸준히 다니면서 다른 건 일단은 일을 꾸준히 다니는 거 저는 그게 제일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봐도..

나. 일상생활관리와 심리·정서적 안정감

- 한편, 일상생활 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청소년들도 있었고, 심리·정서적 안정감이 필요하다고 평가하는 청소년도 있었음.

(참여자 D) (중략) 또, 기술 같은 거 좀 있어야 될 거 청소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요리할 수 있는 기술이라 이거 이것저것 기술이 있어야 청소도 하고 요리도 하고 할 것 같아요.

(참여자 G) 좀 이제까지 살면서 저는 제가 자발적으로 해오지 않았어요. 그냥 시키면 하는 걸 좋아해서 시켜서 하면 제가 생각을 안 해도 되니까 좋은 점은 이제 그래서 시키면 시키는 것만 해도 하다 보면서 하니까 좀 이런 게 자립에서 좀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자립은 하면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자발적으로 자기가 관리를 해야 자립이 되는 건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가장 큰 게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중략) 확실히 좀 아직까지는 좀 회의감이 많이 있긴 해요. 제가 자립을 할 수 있을지 아직 제 스스로도 좀 많이 모르겠는데 이 프로그램이 저한테 효과가 있을지도 좀 잘 모르겠고 좀 괜히 효과 없이 끝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들고 좀 주위 분들도 샘플도 조금 저도 자존감이 좀 많이 낮다고 하세요. 좀 자신감 좀 가지라고 하시는 게 확실히 주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솔직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자신감이나 좀 그런 건 좀 많이 부족한데 물론 올리고 싶긴 한데 잘 안 오르는 것 같아요.

- 자립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신감과 많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출 필요에 대한 욕구도 있었음. 무엇보다 이와 같은 욕구는 경제적인 지원과 함께 상담과 같은 심리·정서적 지원의 필요성이 표현되기도 함.

(참여자 E) 저는 일단은 그런 방법들을 이제 터득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 와도 처음에는 그래도 똑같은 상황이 와도 저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도 당황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점차 익숙해지면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연습의 연습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그렇게 하다가 보면 제가 정말 이제는 표정 하나 안 변하고 그냥 잘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참여자 H)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것은) 가장 필요한 거 일단 상담이나 식기나 막 월세 지원(이죠).

다. 자기돌봄

- 자기돌봄에 관한 인식도 나타났는데, 혼자 있을 때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건강관리와 자기 관리를 해야 한다는 점도 나타남.

(참여자 F) 맞아요. 혼자 있을 때 아프면 또 옆에서 좀 케어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그게 제일 힘든 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원래 운동을 진짜 잘 안 하거든요. 헬스장에서 하는 운동 같은 거 말고 그냥 하루에 만보 걷기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요즘에는 그냥 좀 많이 움직이고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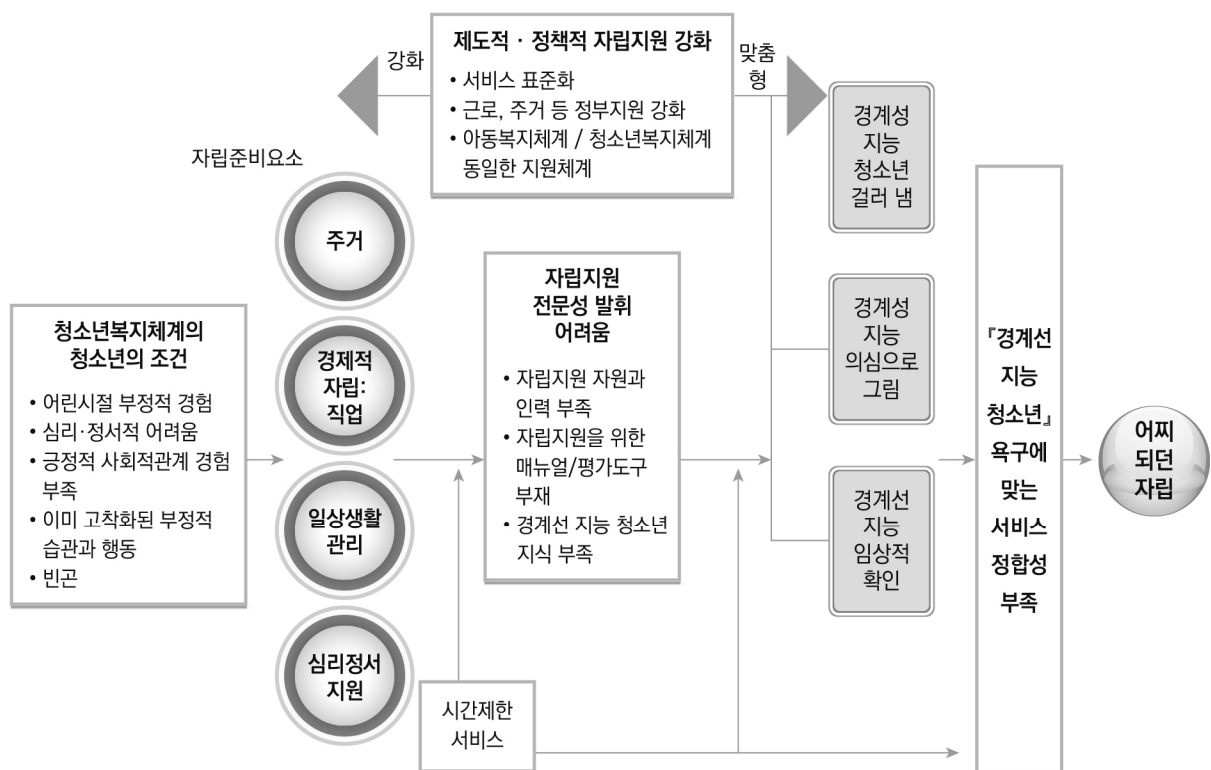
2. 청소년복지시설 자립지원 프로그램 실무자의 경험

-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경험을 실무자 16명을 통해서 확인함. 심층면접에 참여한 실무자의 인적 사항은 <표 21>과 같음.

〈표 21〉 실무자 초점집단면접 참여자 정보

참여자	성별	만 연령	최종학력	사회복지분야 근무기간	현기관 근무경력	직급
a	남	만 41세	대학교 졸업	4년 4개월	4년	보호상담원
b	남	만 35세	대학교 졸업	6년	6년	대리
c	여	만 32세	대학원 재학	7년	4개월	주임
d	남	만 48세	대학교 졸업	11년 3개월	11년 3개월	팀장
e	여	만 39세	대학교 졸업	14년 7개월	9년 3개월	과장
f	여	만 40세	대학교 졸업	10년 1개월	7년 1개월	팀장
g	남	만 33세	대학교 졸업	6년	6년	팀원
h	남	만 28세	대학교 졸업	3년 9개월	1년 3개월	팀원
i	여	만 41세	대학원 재학	13년	3년	팀장
j	여	만 31세	대학원 재학	6년 10개월	3년 4개월	팀원
k	남	만 33세	대학원 재학	7년 6개월	2년 11개월	팀장
l	남	만 32세	대학교 졸업	6년 11개월	2년 11개월	팀원
m	여	만 35세	대학원 졸업	4년 3개월	4년 3개월	주임
n	여	만 36세	대학교 졸업	8년	10개월	팀장
o	여	만 32세	대학원 졸업	5년	8개월	팀원
p	여	만 28세	대학교 졸업	2년 8개월	2년 8개월	팀원

- 청소년쉼터와 자립지원관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들에게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자립지원의 경험을 확인한 결과, 다음의 〈그림 20〉과 같은 논의로 정리할 수 있음.



〈그림 20〉 청소년자립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실무자의 인식과 지원방향

- 실무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살펴본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자립지원은 <표 22> 에서 볼 수 있듯이 5개의 대영역과 14개 소영역으로 분석이 이루어졌음.

<표 22> 실무자의 자립지원경험

대영역	소영역
경계선 지능은 범주로 담아내기 어려움	• 현장에서 경험한 경계선 지능 청소년 특성 • 조금은 다른 특성으로 알게 되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복지체계에서 청소년의 자립 의제는 자립준비 체계를 갖추는 것부터 시작	• 실무자도 자립의 다양한 주제를 모두 다룰 수 없음 • 경계선 지능은 시작 전에 걸려지기도 함 • 전문성을 갖기 위해선 프로그램 표준화 필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자립지원은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할 과제	• 청소년복지체계 청소년의 자립은 주거의 안정성이 중요함 • 주거가 주는 만족도 그리고 한계 • 청소년복지체계를 넘어선 협력으로 자립기반 개발
단기적 접근은 자립 준비를 성공에 이르지 못하게 함	• 시간제한을 둔 자립준비로 자립의 결정적 시기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함 • 관계,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 지원 필요 • 심리사회적응을 위한 촘촘한 지원 필요 • 자립 준비와 이행과정에서 퇴행이 나타나기도 함.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자립 가능성은 충분함	• 성실함은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역량 • 느슨한 지원체계에서 자립 이행 시도

1) 경계선 지능은 범주로 담아내기 어려움

가. 현장에서 경험한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특성

-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자립준비가 이루어지다 알게 되는 일이 많으며, 보통은 의사소통 능력, 일상생활 관리 등의 영역에서 더 어려움을 겪는 특성이 있다고 보고함. 경계선 지능이라는 특성이라는 이유로 자립준비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것은 아니고, 오히려 경계선 지능을 가진 청소년들은 더 자립에 대한 욕구가 커서 성실하게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도 많음.

(참여자 k) 의견도 잘 얘기를 못하고 그만큼 저의 얘기도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고 근데 이해를 못했는데도 그것조차도 얘기를 못하니까 그냥 이해한 것처럼 그냥 넘어가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해주고 챙겨주고 해야 되는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중략) 일단은 약간 위생 관리 이런 것도 네 잘 안 되고 그래서 기본적인 양치나 머리 감는 거 이런 것부터가 좀 잘 안 되고 좀 계절에 안 맞는 그런 옷을 입는 것도 많이 봤고 그리고 취업도 저희도 인턴십을 이제 한다고 해서 연계를 했는데 사실 그게 지금 9월부터 시작했는데 아직 한 달을 못 채워가지고 비용이 못 나갔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중단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혀서 그럼 한 달만 마무리하자라고 한 상태인데 지금 한 15시간을 남겨놓고 계속 안 가고 있어가지고 근데 사실 약속을 했는데 그날 일어나서 출근하는 것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생활관에 있으면 좀 더 들여다 보고 가서 깨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좀 있는데 거리도 멀다 보니까...(중략)... 여러 방면에서 그리고 네 그리고 약간 이런 일반적인 영어 스펠링이나 자기 이제 주민번호 같은 것도 사실 잘 외우지를 못해서 그것도 이제 메모를 본인이 보고 적고 이런 모습도 있고 (중략) 이력서를 쓰더라도 하다못해 그런 것들 맞춤법이라든지 기본적인 그런 것들도 어려움을 충분히 이 친구는 많이 느끼겠다. 그리고 대화를 할 때도 자기표현을 못하다 보니까 뭔가를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 라는 얘기를 거의 하고

(참여자 h)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필요하다는 것은 뭔가 하나가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건데 경계선을 띄는 청소년들한테 하나로만 지원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게 굉장히 생각이 들고 저는 (중략) 네, 너무 다 다른 환경에서 자라오다 보니까. 어떤 친구는 알고 있고 어떤 친구는 거의 모르는 정말 무지한 상태이고, 그런 상황 케이스인데 이제 서울시립 청소년 자립 지원관에서도 이제 경계선에 드는 청소년들을 만나다 보면은 이제 의사소통이나 그런 부분에서 와해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기존에 이제 경계선 지능 청소년들만 만났을 때도 의사소통하면서 와해되는 그런 본인이 이제 제가 전달한 내용과 본인이 이해한 내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제 누구랑 만나든지 이제 그 와해된 것들이 또 와해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본인은 계속 인지적인 오류들을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회성 발달에 굉장히 좀 취약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여지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취업을 해서도 이제 대인관계에서의 오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취업도 또 이제 금방 잘리게 되고 이런 부분도 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참여자 l) 그리고 저는 좀 느낀 거는 자기보호 능력 그러니까 위생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기를 좀 지킬 수 있는 힘이 이제 다른 청소년들에 비해서는 좀 낮은 것 같긴 해요. 만약에 누가 뭐라고 했을 때도 싫어라는 그런 자기 표현이 확실히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 한테 힘 쓸려서 돌아다닐 때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사기나 피해에도 많이 연루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자기보호나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부분을 생각했어요. (중략) 그런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되게 자신한테 되게 가혹하게 나는 잘해야 돼, 실패하면 안 돼, 하지만 막상 일을 할 때 보면 다른 사람이 3회 일을 하면 같은 시간에 ... 1회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직장 내에서도 좀 눈치나 그런 따돌림을 많이 당하고 (중략) 좀 실패에 대한 그런 탄력성 회복 탄력성 같은 부분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일반 청소년에 비해서 또 만약에 일자리가 안 구해지면은 다시 구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청소년이 있는 반면에, 그거에 대해서 되게 좌절하고 걱정하고 좀 그러한 받아들이는 차이점이 좀 그 경계선과 일반 청소년들의 차이가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참여자 k) 일단 경계선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표현을 하자면 속도 차이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아무래도 좀 더딘 부분 이런 거를 저희 기관에서 아이를 만났을 때는 조금 기다려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아무래도 이런 근로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중략) (실패할 때) 위축이 돼 버리는 경우 이런 게 가장 크고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다시 도전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경계선 아이들이 좀 더 이렇게 방 안에서 이렇게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같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경계선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게 두드러진다면은 그냥 일반 자립 청소년들 중에서도 그렇게 유지 못하는 애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거든요.

나. 조금은 다른 특성으로 알게 되는 경계선 지능

- 경계선 지능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으로 인해 추후에 검사를 통해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마저도 개인의 동의가 없을 때는 확인하지 못한 채 개입이 이루어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참여자 c) 지금 이제 입소한 청소년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라고 알고 온 부분은 아니고, 이제 일이나 단기 쉼터에서 관찰을 잘못하신 거죠. 이제 모르고 그냥 이 친구가 경

계선 지능이 아닌 줄 알았는데, 그냥 조용한 친구예요 하고 해서 입소를 했는데 보니까, 조금 특이한 경우가 있어서 알아보니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었다.

2) 청소년의 자립 의제는 자립준비 체계를 갖추는 것부터 시작

가. 실무자도 자립의 다양한 주제를 모두 다룰 수 없음

- 자립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경험이 필요함. 따라서 청소년복지체계에서 자립준비를 할 때 다양한 주제의 준비와 관련 정보를 교육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실무자도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주제를 모두 이해하고,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음.

(참여자 k) 아이들마다 궁금해하는 부분이나 정보를 제공해주길 바라는 부분들이 일단 다 다른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알지 못하는 상황 상태니까 같이 검색을 하면서 같이 알아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부터가 일단은 좀 바로바로 아이들이 원할 때마다 알려주고 싶은데, 그게 사실 안 되니까 그렇게 좀 느끼는 게 있고요

(참여자 l) 예를 들면 사실 대인관계나 이런 부분은 거의 그냥 상담이지, 저희가 뭔가 해결책을 줄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경제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희도 지금 적금 넣고 이런 것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저희도 그냥 검색하면서 같이 찾아보는 정도인 것 같아서 사실 매뉴얼도 그런 세세한 것들이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이런 거는 어느 기관에 한번 들어가 봐라 이 정도까지는 있었던 것 같고, 이 지출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해서 좀 그렇게 한번 계획을 짜보고 실행해 보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가지고, 근데 사실상 청소년들이 원하는 건 정보더라고요. 이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이어서 그냥 그렇습니다. (중략) 성 이런 것도 잘 모르는 (중략) 의료 지식에 대해서 물어볼 때도 있고, 보험 같은 거에 대해서 물어볼 때도 있고, 특히 노동 그거 관련해서도 임금 체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같이 그냥 가서 상담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변 이렇게 되면은 제가 신고할 수 있나요. 없나요를 물어봤을 때 명확하게 제가 할 수 있어 없어라고 대답해 줄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는 선생님도 이거 찾아보고 알려줄게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즉시 처리를 못해 주니까 조금 어떨 때 보면 답답해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고 그냥 본인이 알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참여자 a) 저희 일반 쉼터에서 경계선 지능 청소년 비율은 10%에서 20% 밖에 없고요. 그리고 저희 취입하는 이제 종사자들이 이제 사회복지사로 종사를 하지만 경계선 지능에 대해서 사실 자세히 모르고 오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친구들에 대한 좀 기능적인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몰라서 그 수준도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좀 아는 게 더 먼저 우선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 경계선지능 청소년은 시작 전에 걸러지기도 함.

- 경계선지능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기회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청소년쉼터 등에서는 공동생활에 적합한 청소년을 선호하는 상황에

서 부정적인 심리·정서·행동문제를 보이는 경계선지능 청소년은 입소과정에서부터 걸러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참여자 c) 청소년 쉼터는 친구들 간에 이제 상호 관계 역량이 조금 필요한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의식주를 같이 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이 됐을 때, 조금 사실 입소 면접 시에 좀 배제가 된단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참여자 a) 이게 법적으로는 걸러서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지만 이제 단기 쉼터나 일시 쉼터 이제 거쳐서 저희 올라오는 부분을 볼 때 걸러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 전문성을 갖기 위해선 프로그램 표준화 필요

- 더불어 일선 현장에서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매뉴얼과 지침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하지만,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알지 못한 채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도 하고,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자립 준비를 평가할 도구도 자기보고식으로 이루어져서 청소년의 자립 준비 수준과 가능성을 전문가의 임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발생함.

(참여자 d) 말씀 중에 생각이 났었는데요. 경계선 지능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조금 다른 그런 평가나 이렇게 척도를 좀 대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경계선 지능에 가까웠던 거의 지능 IQ나 뭐 이런 게 좀 그런 인지나 이런 게 조금 떨어졌던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1년 6개월 동안 지원을 경제적인 지원을 받았지만,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자료만 봤을 때는 근데 경계선 지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다시 보면 관점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반영할 수 있는 척도나 이런 게 있으면 데이터나 매뉴얼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참여자 c) 조금 아이들을 핸들링하는 것 자체가 조금 사례의 케이스를 핸들링하는 것 자체가 조금 조금 면밀한 관찰이 조금 어려운 업무 환경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냥저냥 도드라지는 청소년이 아니면 굳이 그 친구가 경계선인지까지 파악해서 면밀히 관찰해서 뭔가 서비스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그냥 통상적인 서비스를 하다가 넘어간다.

3)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자립지원은 지역사회가 함께해야 할 과제

가. 청소년복지체계 청소년들의 자립은 주거의 안정성이 중요함

-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청소년에게는 주거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안정적인 주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자립과정은 범죄연루나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참여자 k) 일단은 그래도 주거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그 생각이 저희 이제 끝난 친구한테 이제 집이 안정이 안 된 상태로 이렇게 종결이 됐는데, 거의 노숙하다시피도 하고 남자친구한테

하지만 그렇게 집이 없으면 밖으로 이제 더 돌게 되면 범죄나 이런 거에 더 연루되거나 그런 위험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들어서... 물론 집 관리나 이런 부분도 물론 끼잇긴 하겠지만 그래도 주거지가 있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만나면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로 느끼는 게 차선책은 이제 주거라고 생각을 해서 주거 같은 경우는 이제 LH라든지 만약에 LH 기준이 안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월세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시원이라든지 아니면 원룸 이렇게 구하면 그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나. 주거가 주는 만족도 그리고 한계

- 청소년복지체계의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체계가 안정적인 보호체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거가 생겼을 때 청소년들의 만족감은 크게 나타남.

(참여자 e) 아이들이 원체 내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공간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가장 크기 때문에 내 공간을 마련하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 그게 주변에 있는 본인들의 자원을 끌어다가 도움을 계속 받는 한이 있더라도 (중략) 아이들이 처음에 내 것을 갖는다는 거에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게 되면 어쨌든 내 물건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것들 내가 그동안 쉼터 공동생활하면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마련을 해 나가긴 하는데 말 하신 것처럼 길게 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외로움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혼자 나가서 내 공간에서 사는 게 너무 좋았지만, 어느 정도의 시점이 지나면 너무 외로워서 누군가와 함께 살거나 아니면 그 공간 앞두고 다시 쉼터로 들어와서 생활하다가 잠깐 쉼 때 집에 간다거나 이런 삶을 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간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안에서의 심리적인 부분들이 아이들한테는 지금 굉장히 예민한 시기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해서 심리적인 부분들까지 같이 가야지 공감만 가게 된다면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기간이 길지도 못하고

(참여자 f) 아이가 스스로의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감이 당연히 높았지만, 그 안에 집 자체로만 지금 얘기를 하자면 본인이 혼자 기관은 공간이 있고 그 안에서 자유로움을 느끼고 스스로 좀 컸다라고 느껴지는 그 만족감 생활에 대한 만족감들이 자유로움 안에서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중략) 그래서 저희도 가서 안에 좀 들여다보고 또 반찬이라든지 좀 챙길 생활 부분에서 좀 챙길 부분들은 챙기고 이렇게 좀 주거를 근처에서 들여다봤을 때는 아이들이 그렇게 혼자 생활하는 거에 대한 만족도는 제가 느낄 때는 초반에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이게 한 6개월 이제 8개월 이제 1년 차로 넘어갔을 때는 훨씬 더 힘들음 나중에 좀 호소하는 친구들도 생각보다 좀 많이 있었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들이 처음에 느껴진 자유로움은 느끼지만, 후반부로 갔을 때는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맞는지 외로움과 또 심리적인 그런 좀...

다. 청소년복지체계를 넘어선 협력으로 자립 기반 개발

-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서는 일자리가 필수적임. 하지만,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청소년복지체계의 역량으로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음. 일자리를 개발하고, 직업훈련과 적응의 일련의 과정은 지역사회와 함께 추진되어야 함. 청소년복지체계를 넘어선 협력으로 일자리 발굴이 필요함.

(참여자 k) (경계선지능 청소년 자립지원은)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좀 다양한 방면으로 이거는 또 현장에서 있는 분들이 더 구상을 해야 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고충이 좀 있어서 좀 개선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중략) 특히나 최근 들어 이제는 한 2-3년 안에는 보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특히나 이제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배달 아르바이트나 이런 게 많이 좀 있는데 아무래도 아이들이 사회성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직 생활을 하는 거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또 이런 환경이 있으니까,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혼자 배달을 할 수 있어서 좀 그런 것도 편해하고, (중략) 저희는 이런 자립 교육의 일환으로 해서 이제 교육비라든지 학업 유지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거기 틀에 맞춰져 있다보니까 아이들이 뭔가를 할 생각을 또 안 하는 부분들 이런 게 굉장히 좀 지원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다 그래서 근로 환경에 있어서 이런 적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여자 a) 저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인프라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사회적 기업 같은 데 연계 같은 것들이 지금 목공 활동이라고 해서 지금 도담도담이라는 데에서 지금 연계를 하는데요. (중략) 퇴소를 하자마자 그 당일에 바로 그만두게 되는... 계속 연계는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근데 결국에 좀 많은 그런 기업들이 있고 하면 좀 적성에 맞는 데를 좀 찾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저희가 20년 됐지만 사회적 기업 연계하는 기관들이 없어요. 지역사회에서 좀 그런 활동이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략) 저는 좀 경계선 지능에 대해서 좀 잘 알고 또 지역사회에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아는 그게 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략) 저희는 이 청소년들에 대한 일자리 확충이 좀 제도적으로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이 친구들이 근데 장애 등급이 딱 있어서 장애인 이용으로도 가지 않고 그렇다고 일반 청소년들처럼 취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사이에 어중간하게 낀 거라서 그렇다면은 저희는 좀 사회적 기업 이런 데서 좀 의무적으로 10% 취업 확충 일자리 확충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여자 l) 공문 형식으로 해서 외부 쪽으로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계선 지능 청소년들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치가 아니라 좀 꾸준히 관심을 보여야 되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경계선 지능인 청소년이 만약에 독립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은 시도나 아니면 여가부 쪽에서 직접적으로 (중략) 지원이 이어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합니다.)

4) 단기적 접근은 자립준비를 성공에 이르지 못하게 함

가. 시간제한을 둔 자립준비로 자립의 결정적 시기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함

- 청소년복지체계의 자립은 2년 내외로 시간제한을 두고 이루어짐. 하지만, 20대 초반 청소년이 경제적, 심리적 지원 없이 자립을 시도하는 것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이를 수 없는 발달 과업임. 더욱이 만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 이루어지는 단기접근으로 시도된 자립교육의 성과를 단기간 포착하기도 어려움. 따라서 장기적으로 청소년들의 자립 이행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참여자 1) 그래서 계속 연장을 할 때마다 사례 심의위원회에서 연장할 때마다 좀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지원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좀 어필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마지막 6개월을 지원을 하면서 일을 시작하게 됐고 한 3개월 만에 100만 원을 모아서 LH로 이렇게 자립을 해서 되게 성공 사례로 종결이 됐거든요. 근데 이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거기 따지고 보면 2년 동안 거의 목돈으로 모은 게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 청소년이 마지막에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났고 마지막에 좀 극적으로 변화가 일어났고 모은 돈으로 자립을 하게 된 이런 케이스인데 이거를 일반 청소년의 일반 자립 준비 청소년에 대해서 이렇게 대입을 하면은 오히려 좀 애는 그동안 뛰었지 실패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참여자 1) 청소년 기본법이란 복지지원법이 24세까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청소년 법에 대한 수정이 아니더라도 예외 조항이라도 넣어서 경계선 지능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온전한 사회 구성원이나, 성인으로 갈 수 있게끔 하려면 이 연령이 일반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24세뿐만 아니라 (중략) 서른되기 전까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쉽습니다. 근데 이게 또 24세가 지나버리면 또 청년으로 넘어가고 청년은 좀 청년지원센터나 이런 데 보면, 복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교육 강의 뭐 이런 느낌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 청소년들이 과연 잘 지낼 수 있을까 청년이 되는 그 청소년들이 경계선인 청소년들이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항상 되었습니다.

(참여자 k) 분명히 납득이 가능한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기간은 최장 2년이고 거기에 대한 결과치는 분명히 나와야 된다면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 기준이 분명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기준을 둔다면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 파트를 나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해야...

(참여자 a) 이거저거 하면서 조정하고 할 시간이 없이 이제 스무 살 넘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퇴소를 밟아야 되는 사이클이 있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구조화된 개입을 시도하는 것도 실무자와 청소년 모두에게 부담이 되기도 함.

(참여자 1) 선생님의 역량 그리고 아이와 이런 대화하는 방식들 이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하더라고요. 무조건적인 뭐가 도움을 준다는 개념으로 들어갔을 때는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좀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그보다는 정말 사람들과 사람으로서 뭔가 좀 정서적인 교류가 좀 일단 일어나고선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냥 초반부터 어떤 단기 계획 또 그 이후에도 중장기적 계획 이런 부분들에 좀 국한해서 지원하다 보면 너무 타이트하게 돼버리고 이게 아이들한테 부담이 돼버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가정에서 어떻게 이런 타이트한 상황에서 자립을 하고 싶어 했던 아이들도 분명 있을 텐데

나. 관계와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 지원 필요

- 무엇보다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들은 아동복지시설과는 달리 안정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기회가 더 적었음. 관계에서 깊이 있는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경계선지능 청소년의 자립역량도 강화되기 때문에 깊이 있는 상호작용을 경험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입이 요구됨.

(참여자 k) 자립 지원관과 특성상이지만, 또 외부 정말로 아예 이런 쉼터나 이런 기관을 전혀 이용해 보지 않은 청소년들을 이제 처음 대면했을 때 그 아이들이랑은 정말로 좀 관계 형성하는 게 좀 틀어질 때도 굉장히 많이 있고,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가 연락 두절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 좀 이런 상황이 (많아요)

(참여자 l) 경계선 지능 청소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보통 쉼터에서 되게 상호작용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선생님과도 일어나고 주변에 있는 또래 청소년들과도 일어나고, 그래서 보통 대화를 많이 하거나 이러면 이게 좀 발달이 되고, 되게 그냥 어느 정도 나중에는 점점 이게 쌓여서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데 별로 경계선(지능 청소년) 인 것 같은 느낌이 안 들 정도로 되게 잘 이루어진 청소년은요.

다. 심리 사회 적응을 위한 촘촘한 지원 필요

- 청소년 복지체계의 경계선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청소년들도 생애 초기 경험한 다양한 부정적인 경험과 고착된 부정적 행동 습관으로 인해 심리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음. 이와 같은 다양한 심리, 사회적 어려움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서비스가 지속해서 제공되어야 함. 단기적, 일시적 접근으로는 심리적 안정감 속에서 사회적 자립을 시도할 수 없음.

(참여자 h) 되게 어렵네요. 뭔가 다 두루두루 세 가지만 따로 말씀드리자면 사회성이랑 그리고 취업 그리고 심리 정서 이런 쪽으로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c) 그냥 저는 비슷한 의견인데 약간 심리 재활이 약간 사회 심리 재활 서비스를 좀 많이 체계적으로 제공해서요. 이 친구들이 진짜 정서적으로도 조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주기별로 이제 발달 단계가 있는데 그 부분들이 충족되지 않은 이제 원가정에서 충족되지 않은 채로 이제 사회에 유입이 되다 보니까 사회 심리재활적인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경제적인 교육도 중요하기는 한데 앞서 그 부분이 조금 채워져야 이후에 이제 경제적인 부분들에 대한 진로를 탐색하고 이런 과정도 있을 것 같아서 사회 심리 재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조금 중요시 선행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라. 자립 준비와 이행과정에서 퇴행이 나타나기도 함.

- 자립 준비를 통해서 독립된 생활이 시도되어도 주거 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어서 다시 제자리로 환류하게 되는 경우도 많음. 자립에 필요한 경제적 지식과 일상생활 지식 등은 단번에 알기 어려움. 더욱이 자립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꾸준한 일상생활, 자기관리가 필수임. 하지만, 때때로 자립 이행 과정에서 퇴행이 나타나기도 함. 이는 자립지원에 있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수 있음을 나타냄.

(참여자 l) 이제 나이가 돼서 퇴소하고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시 만났을 때 헤어졌을 때의 그 모습이 아니라 사실 원래대로 돌아가 있거나 되게 과거로 되게 좀 퇴행되는 느낌도 많이 받았어요. 경계선 지능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같

이 같이 뭔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나중에 발견되거나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는 좀 원상태로 가서 자립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5)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자립 가능성은 충분함

가. 성실함은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역량

- 경계선 지능 청소년들은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지만, 성실한 태도의 경우, 경계선지능 청소년의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특성으로 손꼽힘.

(참여자 d) 그렇게 쉽지 않다는 의미가 저희가 이제 경계선이어도 경계선이어도 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착하고 성실한 아이들이 있고요. 그중에 그리고 이제 그냥 부족하더라도 그냥 있는 곳에서 만족하고 (중략) 아이들 중에서 성실한 애들이나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잘하고 있는 애들은 괜찮습니다.

나. 느슨한 지원체계에서 자립 이행 시도

- 경계선 청소년들이 자립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실무자들은 느슨한 지원 속에서 자립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았음.

(참여자 f) 저희는 쉼터 근처에 이제 초반에는 저희도 이제 좀 다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쉼터 근처에 있는 곳에 다 자립을 좀 시킨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참여자 g) 그 기간을 두는 데 개인이 갖는 생각이 되게 다르겠지만 이제 경험상에서는 한 달만 해도 충분히 충분히 자립 생활을 해봤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아이들한테 그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중략) 성공과 애가 유지와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유지 기간이 아니어도 충분히 성공적으로 자립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여자 d) 그리고 이제 일자리까지 있으니까 주거랑 일자리가 있으니까 물론 일자리가 바뀌긴 하나 중간에 그래도 그런 과정을 또 저희가 옆에서 또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애는 잘 지내고 있고 앞으로 또 일자리만 조금 더 잡아준다 그러면 충분히 잘 지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하지만, 다양한 위험이 상존해있어서 느슨한 연계로 이들이 어려움에 부딪치지 않도록 돕는 사회적 지원과 관심은 필요함.

(참여자 l) 경계선이라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 청소년도 마찬가지지만 경계선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우려가 됐던 부분은 사실 이 친구들은 돈을 잘 안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서 다 경제적으로 오히려 좀 되게 부지런하고 돈을 잘 모으는 부분이 있지만, 오히려

려 그렇다 보니까 잘 모아서 잘 됐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좀 이용하려고 하는 주변인들이 되게 많아요. (중략) 그런데 경계선지능 청소년들은 경제관념이 더 부족하니까 그게 좀 많이 어렵습니다. (중략) 만약에 또 일상생활 관리도 좀 상식이라고 하기에는 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 보면 월세에서 만약에 보증금이 1천만 원이고 매월 30만 원씩 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가 전세를 구해도 집을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전세가 더 좋은 데 안 나가려고 해라고 해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증금 천만 원을 나중에 돌려받는 개념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중략) 그런 보증금 개념부터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내용을 모르고 있는 이런 경우가 좀 되게 많았습니다.

(참여자 b) 자립한 청년들이 이렇게 좀 시간 단위로 확인할 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 자립 지원관 같은 경우에는 (중략) 올해 나이 때문에 이제 자립 지원관에서 퇴소를 했는데 한 달 만에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혼자 설계하는 것도 좀 위험하고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참여자 a) 저희 쉽터는 좀 약간 그런 부분에서 보면 좀 기능이 좋은 경계선 지능을 가진 청소년들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2~3년 정도 평균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 자기들 자격증 같은 것들을 좀 준비를 해서 나가는데 결국에 자립은 해요. 최소한의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다만 부족한 거는 과연 그 일이 얼마나 지속 가능하며 얼마나 피해를 볼 수 받느냐가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결국 이 친구들의 자립은 항상 사회 밑바닥 층에 있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경계선지능

청소년 자립준비 주거지원사업 성과에 관한 연구

05

논의 및 결론

- 1절 주요 연구결과 요약
- 2절 연구의 제한점
- 3절 제언

5장 논의 및 결론

1절 주요 연구결과 요약

1. 경계선지능 청소년의 특성

-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진행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경계선 지능 청소년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 12명의 종합심리검사결과를 살펴본 결과, 비슷한 지능지수를 가진 경우에도 세부적인 하위지표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이러한 세부지표 간의 차이는 경계선지능 청소년이 단순히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이 아닌 다양한 특성을 가진 이질적인 집단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일부 경계선지능 청소년의 경우 언어이해 수준은 평균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일부 청소년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이러한 격차는 지각추론, 작업기억, 처리속도에 있어서도 나타났음.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경계선지능 청소년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 중 2명(22.2%)를 제외한 6명의 참여자에게 심리·정서·행동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음.
-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 중 다수는 정서적으로 불안지수가 높고, 피해의식이 높고, 인내심이 적고 충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이야기 기한 바와 같이 경계선지능 청소년의 가정문제 혹은 학교문제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복합적인 공존질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 따라서 경계선지능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심리·정서·행동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사정을 한 후 개입을 하여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함.
- 주관적인 척도를 활용할 경우에는 단순히 주관적인 척도의 결과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전반적인 참가자의 특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음. 임상적으로 자신을 잘 보이기 위해 호응을 하는 참가자의 결과치는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의가 필요함. 즉, 주관적인 질문이 아닌 다양한 방식의 심리평가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2. 경계선지능 청소년 주거지원사업의 성과분석

- 경계선지능 청소년 주거지원프로그램에 2022년 12월 말 현재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은 4명을 대상으로 주거지원사업에 참여한 후, 심리·정서·행동측면에서 MMPI-2와 조규필(2016)의 자립준비도 척도를 활용하여 변화정도를 살펴보았음.
-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후에 있어서 MMPI-2 하위 지표들이 안정적이면서도 큰 변화가 없는 대상자가 2명(50.0%)로 나타남. 이들 중 한 명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심리·정서·행동을 보이며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취업상태로 일하고 있음. 반면, 심리·정서·행동에 문

제를 보이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불안과 우울이 심화된 것으로 보고됨. 이 사례의 경우, 자립을 위한 직업조사 등을 하기보다는 회피하는 방식으로 대처를 하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심리·정서적 치료가 우선적으로 개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자립준비도에 있어서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의 전반적인 평가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개별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상태에 따라서 자립준비도가 부분적으로 낮아지는 경우도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 다만, 개별 청소년이 응답한 자립준비도의 점수를 고려할 때, 초기단계에서의 자신만의 독립적인 주거공간에 대한 욕구로 인하여 과도한 자신감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따라서 보다 객관적으로 청소년의 자립준비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의 필요성을 확인함.

3. 경계선지능 청소년 자립지원 경험에 관한 질적분석

- 본 연구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자립지원 프로그램 경험을 경계선지능 청소년과 실무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확인하고, 분석함. 청소년 14명과 실무자 16명을 심층 면접함. 면접을 통해서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자립지원 경험은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8명과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6명을 통해서 도출함.
- 주거지원 사업 참여 청소년과 비참여 청소년 간의 자립지원 과정과 경험을 통해서 살펴본 결과, 주거를 기반으로 주기적인 지원이 제공될 심리적 안정감이 증가되어 자립 동기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남. 분석 결과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주거지원사업에 참여한 경계선 청소년들은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만족함. 그 주된 요인은 주거가 주는 안정감이 컸음. 둘째,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들은 자립교육이 10대 시절 청소년쉼터에서의 교육과 별반 차이가 없고, 흥미를 갖기 어려운 교육이라고 평가했음. 반면, 경제적, 심리적 지원은 자립을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함. 셋째, 주거지원 사업에 참여한 8명의 경계선 지능 청소년은 사업 참여를 통해서 주거와 경제적 지원이 만족스러웠고, 구직단계 진입하기 위한 다양한 진로탐색과 직업 훈련이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남. 마지막으로 주거지원 사업에 참여한 8명의 경계선 지능 청소년은 앞으로 자립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으로는 경제적 자립기반을 만드는 것과 일상생활과 심리·정서적 안정감을 위한 노력과 지원이 필요했음.
 - 실무자 16명의 목소리를 통해서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자립지원의 경험을 확인한 결과, 경계선 청소년의 자립지원은 청소년보호체계의 자립지원 체계 강화와 함께 지역사회가 함께 할 과업임을 확인함. 체계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때, 경계선 지능을 가진 청소년의 자립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있음. 상세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일선 현장에서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 보이는 몇 가지 특성이 있지만, 조금 다른 특성으로 경계선 지능 청소년임을 알게 되었음. 둘째, 청소년복지체계에서 청소년자립 준비를 이

행하기 위해서는 자립준비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했음. 그 이유로는 실무자도 자립의 다양한 주제를 모두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자립을 이행하는데 서비스의 즉시성이 달성하기 어려웠음. 무엇보다 자립지원 체계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해서 경계선 지능 청소년은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하기도 함.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셋째,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자립지원이 담고 있는 주거, 직업 교육, 고용 등의 주제는 지역사회가 협업할 때 가능했음.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들의 주거 안정성이 자립 준비를 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지만, 주거의 만족도는 장기간 유지되지 못한 채 다시 서비스 체계로 환류 및 퇴행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함. 즉, 주거 지원과 함께 심리·정서적, 고용 측면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제공될 때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립 기반을 유지할 수 있음. 넷째, 자립은 장기간 성취해야 할 발달과업이지만, 단기적 시간제한 접근을 하면서 경계선 청소년이 충분히 반복하여 역량이 확인되는 시점을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나기도 함. 더욱이 자립을 위해서 필요한 사회성(관계)역량, 고착된 심리사회 부적응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음. 마지막으로 실무자들은 체계와 청소년들이 가진 자립의 다양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특성을 가진 경계선 지능 청소년들은 자립을 충분히 달성한다고 보고함. 또,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해서는 느슨한 지원 속에서 자립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할 필요도 제기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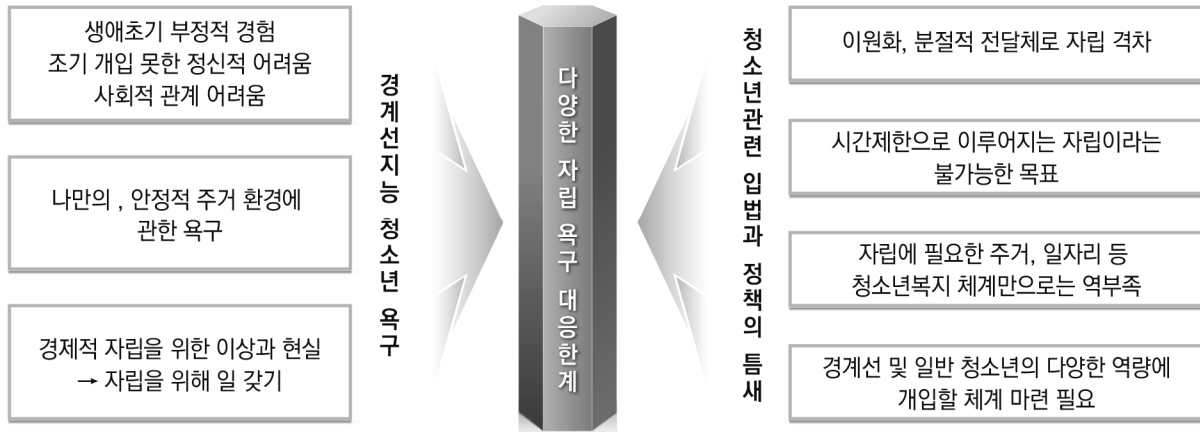
2절 연구의 제한점

- 본 연구는 경계선지능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지원을 기반으로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 기관의 경험을 정리하였다는 측면에서 한계점이 있음. 이는 지역별 기관별 특성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연구결과를 이해할 필요성이 있음.
- 경계선지능 청소년의 주거지원을 중심으로 심리·정서·행동문제와 자립준비도의 변화를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적은 사례 수를 기반으로 하여 분석을 수행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다음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표본의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함.
- 경계선지능 청소년의 자립준비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수의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자립준비도 척도를 활용하였으나, 주관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많은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활용중인 자립준비도 척도는 경계선지능 청소년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닌 일반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작성된 척도이기 때문에 경계선지능 청소년에 적합한 척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절 제언

-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도출된 경계선지능 청소년의 자립지원의 한계는 <그림 21>에 제시되어 있음.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경계선지능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해서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욕구와 정책의 틈새를 채워 정책의 정합성을 높이는 것에 주력해야 함. 경계선지능 청소년은 생애주기 초기의 부정적 경험으로 가정 외 청소년이 되고, 입·퇴소를 반복하는 청소년쉼터 특성으로 안정적인 발달 성과와 과업을 달성하지 못함.
- 생애초기의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하여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청소년일 경우에는 자립을 위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심리정서적인 지원이 우선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경계선지능 청소년이 경험하는 심리정서적 어려움은 취업·경제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하는데 필수적인 사회적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경계선지능 청소년은 나만의 공간 및 안정적인 주거에 대한 상당한 만족감과 욕구를 보여줌. 하지만, 이들이 스스로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하면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자립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경계선지능 청소년의 관심과 역량에 적합한 다양한 인턴십과 일자리를 발굴하거나 창출하고, 취업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임.
- 한편, 이와 같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입법과 정책은 분절적인 특성으로 아동보호체계와 청소년보호체계에 있어서 자립격차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아동보호체계의 청소년과 비교하여 청소년보호체계의 청소년은 자립을 준비하는데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원을 받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청소년보호체계 내에 있는 경계선지능 청소년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함.
- 청소년복지시설퇴소 경계선지능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서는 주거지원, 일상생활지원, 의료비지원, 인턴십 및 취업지원, 지역사회자원의 연계 등 광범위한 지원이 요구됨.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지원을 하기에는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 등의 청소년복지시설만으로 모두 것을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자립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과정에서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사회적 지지체계와 연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즉 청소년복지시설 내의 실무자들의 지역사회 협업을 위한 역량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다양한 사회자원을 발굴하고 연계 및 협력하는 과정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자립을 지원할 수 있음.
- 추가로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중장기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자립지원이 동일하게 만 24세까지 이루어지는 중장기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역할 중복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음. 따라서 생활시설중심의 청소년 쉼터에서 일정 기간의 자립을 위한 인큐베이팅이 이루어진 후, 독립적인 주거환경에서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지원을 받으며 자립을 준비하는 단계별 지원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자립준비과정을 2년 이내로 제한한 것은 경계선지능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너무 짧은 시간으로 간주됨. 일반적인 청소년도 2년이라는 시간은 자립을 준비하는데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경계선지능 청소년이 충분히 자립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그림 21〉 경계선지능 청소년 자립지원 한계점

- 청소년복지시설 내에서 경계선지능 청소년의 수가 상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수가 경계선지능 청소년인지는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임. 따라서 경계선지능 청소년을 위한 자립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첫 단계는 조기발견을 통한 개입이라고 할 수 있음.
- 조기발견을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복지시설 내 실무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함. 특히,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이 보이는 특성을 청소년복지시설 내 실무진 및 유관기관의 전문가들이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면, 청소년복지시설 혹은 학교에서 청소년이 낮은 이해력, 낮은 수준의 의사표현능력, 낮은 추론능력, 낮은 주의집중력, 학업실패(우울증 또는 문제행동을 동반할 수 있음)을 보일 경우에 보다 면밀하게 관찰하고 종합심리검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음.
- 예를 들면,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은 일반적인 아동·청소년과 비교하여 다음의 측면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

- | | |
|-----------------------|---------------------------------|
| ✓ 목적의식을 가지고 행동 | ✓ 행동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작업기억에 가지고 있음 |
| ✓ 계획과 전략적 방법을 가지고 해결 | ✓ 복잡한 상황에서 요점을 찾을 수 있음 |
| ✓ 문제의 다양한 측면에 주의를 기울임 | |
| ✓ 융통성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봄 | |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경계선 청소년의 자립준비의 기반을 표준화와 함께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무엇보다 자립지원 통합서비스를 이행할 표준화된 서비스의 개발과 서비스 수행 과정에서 활용할 표준화된 양식이 필요함. 이와 같은 고도의 표준화 과정은 실무자의 실무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주요 전략이 됨.

- 더불어 다양한 청소년의 역량을 반영한 맞춤형 자립준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자립준비 평가 도구가 경계선지능 청소년에 자립준비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개발되어야 함. 이와 같은 과정이 체계적으로 준비될 때 경계선 지능 등 자립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례를 걸러내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음.
- 경계선지능을 판정하는 과정에서는 단순히 지능검사만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개인별 맞춤형 개입을 하기에는 효율적이지 않음. 이는 지능지수는 경계선지능 청소년인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을 뿐, 어떠한 사회적 기술 혹은 의사소통기술 등이 부족한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개입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임. 따라서 경계선지능 청소년에 대한 사례관리를 효과적인 평가도구를 통하여 파악함으로써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함.
- 경계선지능 청소년은 다양한 특성을 가진 이질적인 집단으로 다양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개인별로 적절한 맞춤형 개입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 예를 들어, 외국에서는 Inventory for Client and Agency Planning 도구를 활용하여 경계선지능 청소년의 적응행동을 다음의 측면에서 평가함.

✓ 사회적 기술과 의사소통 기술
✓ 개인 일상생활기술

✓ 지역사회 생활기술
✓ 운동능력

- 또한, 경계선지능 청소년의 경우 다양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공존질환을 가진 경우가 많은 것을 고려하여 정신건강관련 검사도 함께 수행하는 것을 권장함.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경계선지능

청소년 자립준비 주거지원사업 성과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참고문헌

- 강옥려. (2016). 경계선급 지능 아동의 교육: 과제와 해결 방안. 한국초등교육, 27(1), 361-378.
- 관계부처합동. (2021).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더 나은 내일로 함께 내딛는 첫발
(<https://www.opm.go.kr/flexer/view.do?ftype=hwp&attachNo=108634>)
- 김은녕. (2019). 여자 가출 청소년의 쉼터 퇴소 후 자립경험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26(1), 55-77.
- 김은정·백혜정·김희진. (2019).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모색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30(2), 113-144.
- 김현주·한경임·장지현. (2022). 가정 외 보호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 대상 자립지원프로그램 관련 연구. 청소년학연구, 29(11), 439-468.
- 남미애·홍봉선·육혜련·김은경. (2012).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내실화 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변관석·신진숙. (2017). 경계선 지능에 관한 국내연구 동향 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19(1), 79-109.
- 손선옥·박현용. (2022).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자립지원 방향에 관한 탐색적 논의, 사회복지연구, 53(3), 183-209.
- 손혜옥·최외선·이미옥. (2008). 시설청소년의 자립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한국가족복지학, 13(4), 185-203.
- 아동자립지원단. (2013).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보고서. 보건복지부.
- 아동자립지원단. (2017).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 자립지원체계 연구: 경계선 지능 아동 자립지원서비스 효과성 보고서. 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여성가족부. (2018). 청소년백서.
- 여성가족부. (2022). 2022년 청소년사업 안내
- 이상정·김지민·류정희·김지연·김무현. (2020).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자립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자립지원정책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20-2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정·김지민·류정희·조정우·홍문기·안은미. (2021).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를 위한 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주현·김정애. (2015). 퇴소를 앞둔 중장기 쉼터입소 가출청소년의 퇴소준비과정에 관한 현상학적 접근연구. 청소년학연구, 22(8), 1-24.
- 전민경·이지선. (2020).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준비 지원 실태조사 연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정선옥. (2021). 아동보호와 청소년보호가 달라야 할 이유가 있는가?. 보건복지포럼.
- 정희정·이재연 (2008).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의 특성. 특수교육학연구, 42(4), 43-66.
- 조규필·정경은. (2016). 취약청소년의 자립준비도 분석: 두드림 프로그램 참여자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3(3), 267-292.
- 참여연대(2022). 2023년 보건복지분야 예산안 분석:아동청소년분야
- 임병동(2022년 10월 25일). 자립생활 원하는 쉼터 청소년 34%인데... “성인 되어야 자립지원하겠다”는 여가부. 대한뉴스. (<http://www.d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4479>)

- Baxter, H., Lowe, K., Houston, H., Jones, G., Felce, D., & Kerr, M. (2006). Previously unidentified morbidity in pati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British Journal of General Practice*, 56(523), 93-98.
- Catalunya, G. (2018). Recommendations for caring for people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 Masi, G ; Marcheschi, M ; Pfanner, P. (1998). Adolescents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Psychopathological risk. *Adolescence*, 33(130): 415-424.
- Peltopuro, M., Ahonen, T., Kaartinen, J., Seppälä, H., & Närhi, V. (2014).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52(6), 419-443.

세상을 바꾸는 작은변화,

이 연구보고서는  아름다운재단 지원으로 제작하였습니다.

The Beautiful Foundation